

COVER STORY

로이킴 & 소란

COLUMN

낮선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

세계의 콘서트홀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홀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Roy Kim



SORAN

BUSAN

7월 한달간의 부산음악 여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원맨스 페스티벌 2024

釜山一個月的音樂盛典 / 釜山ワンマンズフェスティバル

우리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3rd

2024.7.1.MON > 31.WED

제2회 부산 라이징팀 콘테스트

2nd BUSAN RISING TEAM CONTEST

공연 06.11-07.31.18:00

부산의 새로운 로컬스타 모집! ☆

선정된 4팀은 상금과 함께 녹음, 음원 등록, 메이킹필름 제작 및 공연 무대 제공



프롬나드 콘서트

2nd PROMENADE CONCERT

부산푸드필름페스타와 함께하는 오미 만족 콘서트

2024.06.28.FRI-30.SUN

부산 영화아트홀 야외무대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소공연장연합회 후원 BNK 부산은행 부산향의원
주관 부산소공연장연합회 부산 Small Art Hall Association
협업 부산마루국제음악제 KMA 한국미디어아트 대동대학교 BFFF 부산음악장작소

2024 부산 원맨스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 지원사업」입니다.



UNIVERSAL BALLET

잠자는 미혹속의 미녀

The Sleeping
Beauty

2024. 7. 12 FRI 7:30PM / 7. 13 SAT 2:0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출연 | 유니버설발레단 | 티켓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 | 입장연령 | 7세 이상
|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 interpark 티켓 1544-1555

서부산권 문화의전당
을숙도문화회관

THE 10TH
EULSUKDO

제10회 을숙도 오페라축제

OPERA
Festival

7. 5.(금) 7:30PM

7. 6.(토) 5:00PM

마술피리

부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7. 13.(토) 5:00PM

라 트라비아타

부산예술오페라단

7. 19.(금) 7:30PM

7. 20.(토) 5:00PM

팔리아치

드림문화오페라단

7. 27.(토) 5:00PM

세비야의 이발사

오페라단 나눔

2024. 7. 5.~27. 금. 7:30PM / 토. 5:00PM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 주관 | 부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예술오페라단, 드림문화오페라단, 오페라단 나눔 | 입장연령 | 초등학교 이상

|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http://eulsukdo.saha.go.kr> | 이메일 | 20% 할인 | 관람료 | 1층 3만원 / 2층 2만원 | 문의 | 051)220-5811~14

을 숙 도 문 화 회 관
한여름밤
아이스 커피 콘서트

Ice
Coff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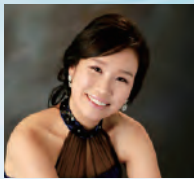


2024. 7. 23. | 화 오후 7시 30분
을숙도문화회관 야외 특설무대



Singer
박완규

지휘
홍희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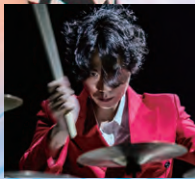
소프라노 | 윤선기



테너 | 이우정



드럼 | 김민동



모듬북 | 김수동



* 우천시 대공연장으로 장소 변경 될 수 있음

피콜로 오페라 페스티벌

Piccolo Opera Festival

2024. 7. 19.(금) ~ 8. 9.(금)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라 트라비아타
부산예술오페라단

7. 19.(금) 19:30



몰의 아이
영아츠 컴퍼니

7. 26.(금) 19:30



피가로의 결혼
프로젝트 오리지널

8. 2.(금) 19:30



그남자 그여자 & 이상한 네일샵
아트내상스

8. 9.(금) 19:30

주최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공연단체

티켓가격 R석 20,000원, S석(2층) 10,000원 **관람제한** 8세 이상 관람가

티켓할인 초·중·고등학생, 예술인 패스권 소지자, 단체 20명이상(30%), 누리회원(40%), 국자유공자, 장애인(50%)

인터넷예매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전화예매** 해운대문화회관 051)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 예매처



2024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글 : 오 상 열 (갤러리 편물)
그림 : 전 보 민 (신향중 3년)

거인의 정원 10주년 기념 부울경투어
7.13(토) 오전 11시 / 오후 3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일반 20,000원 정기회원 15,000원 VIP회원 10,000원
예매 영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에스24
문의 051.419.5571~4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관람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부산시립합창단

2024 SUMMER FANTASY

The
QUEEN
Symphony

지휘 **임희준**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경성콘서트라이어

동아대학교 합창단

2024. **7.23** 화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R석 20,000원 A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4. 7월호 Vol.391



Column	10	낮선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
세계의 콘서트홀 ⑤	12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콘서트홀, 퀸 엘리자베스 홀 그리고 안트베르펜 심포니 오케스트라
Cultural Issue	16	‘한국판 에든버러’의 꿈
Cover Story	22	로이킴&소란
Preview	24	
전시 화제	28	구스타프 클림트 레플리카展
문화가 화제 1	30	2024 부산원먼스페스티벌
문화가 화제 2	34	제19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Review	36	
Program Guide	38	
New Book	51	



낮선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

• 박진홍 음악평론가

요즘 여행 관련 콘텐츠가 유행이다. 팬데믹 이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영상 크리에이터, 공중파 방송할 것 없이 특색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떠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공연장을 찾는 것도 유쾌한 여행의 하나다. 어떤 음악을 들을 것인지 생각하는 것은 마치 여행지를 고를 때처럼 부푼 기대감을 준다. 자주 가던 곳의 익숙함과 낯선 곳에서 느끼는 설렘 중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음악 심리학 연구에서는 열 살 전후에 평생토록 즐길 음악에 대한 심리적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기 긍정적 음악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이후 10대와 20대에는 좋아하는 음악 영역을 넓히고 플레이 리스트를 채운다. 나아가 연주회장을 찾거나 음원을 구입하고 팬덤을 형성하며 적극적으로 음악 문화를 향유한다. 하지만 30대가 되면 익숙하지 않은 음악 장르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늘 듣던 장르만 듣는 경향이 점점 굳어진다.

10대부터 쌓아온 플레이 리스트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잠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많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작품은 바로크, 고전, 낭만주의의 것들일 것이다. 독자가 이들 시대의 음악을 좋아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해 왔던 음악 경험을 되짚어보자. 좋아하는 작품이나 장

르와 관련하여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필 자에겐 쇼팽이나 베토벤의 작품들이 그렇다. 어린 시절 그 음악을 들었던 곳의 모습과 상황,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 아련하게 떠오른다.

30대 이후, 호기심이 줄어들더라도 우연히 새로운 음악을 들을 때가 있다. 연주회에서 늘 내가 알고 좋아하는 곡만 연주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처음 듣는 곡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익숙한 시대의 음악들이다. 간혹 20세기 이후에 창작된 작품들을 듣기도 하지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현대음악은 어려워라는 말로 익숙한 쪽으로 관심을 돌린다.

낭만주의 시대까지의 음악 양식은 규칙의 힘이 센 창작법이였다. 규칙을 따르면 통일성이 생기고 시류에 편승하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규칙에 빠지면 진부하고 지루한 작품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잊혀진다. 반면, 혁신적인 자기만의 색채가 강하면 난해하다며 배척당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양쪽 모두 진부하든 난해하든 그 시대의 현대음악이다.

20세기 이후, 현대음악은 창작법은 있으나, 이전 시대에 비해 더 규칙이 험거워지고 허용적이며 음악적 재료에 한계도 없어졌다. 조성과 형식이라는 그릇을 비워냄으로써 그때까지와는 다른 길로 훨씬 자유롭게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혁신적인 새로움은 20세기 초,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도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세계대전을 전후로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음악도 이전 시대 사조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당시 서양 작곡가들의 새 그릇과 창작물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음악가들과 애호가들 사이에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일명 아방가르드 음악들은 익숙함과 낯섦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익숙한 음악이 주는 편안함과 가슴으로 와닿는 감동은 우리의 정신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준다. 반면, 예상했

던 범위를 훌쩍 넘어버리는 낯선 음악은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호기심으로 거리감도, 짜릿한 생동감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런 낯선 음악들이 음악에 대한 우리의 젊음을 불러일으킨다. 평범하지도 익숙치도 않은 연주법과 선율, 리듬이랄 것도 없는 음형들이 멋대로 날뛰는 소음이 우리의 청각 세포를 싱그럽게 자극한다. 이전 시대인 낭만주의가 음악에 담았던 감정을 넘어서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또는 이리저리 비틀어 표현함으로써 나와 음악과 세상을 잇는다. 마치 저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잔뜩 긴장하면서도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끼는 자신을 만나는 것 같은 여행의 경험을 하게 해 준다.

어디로 이 낯선 여행을 떠날까. 대부분 음원으로 밖에 들을 수 없으니 아쉬움은 있지만, 20세기 이후 현대음악에 이름을 남긴 작곡가들의 작품을 자주 접하면서 낯섦에 익숙함을 얻어 주는 것도 좋겠다. 잦은 감상만 난해하다는 단순한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 지역 작곡가들의 창작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문화회관 로비에서 몇 번쯤 스쳐 지나갔을 이 예술가들은 삶의 터전, 문화적 토양을 우리와 같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성공한 작곡가이고 유명세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음악가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며 그것을 어떻게 음악에 담아 내고 있는지 생동감 있게 지켜볼 수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열리는 개인 창작 발표회가 3건, 창작 단체의 연주가 12건이다. 창작 발표회를 찾아가는 것이 어색하긴 하지만 가보지 않은 여정을 거니는 그 묘한 느낌을 공연장에서 느껴 보면 색다른 감동과 활기가 느껴진다. 설렘과 기대, 어색한 긴장이 뒤섞여 불편하기도 하지만 꽤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더불어, 부산문화재단 사업이나 공연장들의 기획공연을 통해서 지역의 창작물들이 익숙한 음악들과 함께 자주 무대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많은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음악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낯설고 어렵지만 그곳에 가야만 진정한 그곳의 모습을 알게 된다.

벨기에 안트베르펜 *Antwerpen*의 콘서트홀, 퀸 엘리자베스 홀 *Queen Elizabeth Hall*

그리고 안트베르펜 심포니 오케스트라

•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서저지 대표





먼저 생소한 지명의 도시가 나오는데, 안트베르펜(Antwerpen)은 벨기에 북부 플란데런 지역의 안트베르펜 주의 주도이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보다 큰 벨기에의 최대 도시이다. 한국에서는 영어 명칭인 앤트워프(Antwerp)로 잘 알려져 있다. 안트베르펜이라고도 부르고 방언으로는 안트와르프(Antwarp)라고도 부른다. 과거 영어식 발음인 앤트워프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현지 발음을 존중하여 안트베르펜으로 부르고 있다.

벨기에는 크게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공용어로 쓰는 남부 왈롱 지역과 네덜란드어 계의 플란데런(플랑드르), 그리고 수도 브뤼셀로 나뉘어져 있다. 용어가 헛갈리거나 조금 까다로운데,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만났던 ‘플란더스의 개’의 플란더스가 바로 플랑드르이다. 플란더스(Flanders)는 영어식 발음이고, 미술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플랑드르(Flandre)는 프랑스어 발음이지만, 정확하게 이 지역은 네덜란드어가 공용어 이기에 정확한 발음은 플란데런(Vlaanderen)이 되겠다.

오늘 이야기할 퀸 엘리자베스 홀 역시, 정확히는 네덜란드어를 공용어를 쓰는 플란데런 지역의 안트베르펜에 위치해 있으니 네덜란드어로 코닝긴 엘리자벳잘(Koningin Elisabethzaal)로 쓰는게 맞으나, 편의상 퀸 엘리자베스 홀으로 통일하겠다. 퀸 엘리자베스 홀은 동명의 공연장이 영국 런던에도 또 하나 있다. 템즈강 하단 사우스뱅크 센터의 메인 콘서트홀의 이름이기도 하다.

퀸 엘리자베스 홀은 벨기에 앤트워프의 코닝긴 아스트리드 플레인(Koningin Astridplein)에 위치한 콘서트 홀이다. 내부는 2,000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앤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상주해 있다. 퀸 엘리자베스 홀은 앤트워프 왕립동물학회(Koninklijke Maatschappij voor Dierkunde Antwerpen)가 관리하는 앤트워프 엘리자베스 센터의 부속건물 중 하나이다.

1 전통의 파사드를 가진 퀸 엘리자베스 홀 외관

퀸 엘리자베스 홀의 역사를 살펴보면, 1897년, 앤트워프 왕립동물학회가 주최하는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현재의 퀸 엘리자베스 홀 부지에 대연회장(Grote Feestzaal)이 지어졌고, 엘밀 티엘렌에 의해 최초의 콘서트 홀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당시는 파티 홀(Festzalencomplex)의 일부였으며 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무도회장과 심포니 연주를 위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중 이 시설은 심하게 파손되었고, 1947년 전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약 1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시설은 1959년 엑스포 개최를 위해 새로운 콘서트 홀을 건립하게 된다. 지금의 이름인 퀸 엘리자베스 홀(Queen Elisabeth Hall)은 당시 벨기에의 국왕 알베르 2세의 어머니인 바이에른의 엘리자베스(Elisabeth Gabriele Valérie Marie, 1876~1965)를 지칭한다. 그는 벨기에의 왕비로 1909년부터 1934년까지 알베르 1세 국왕의 아내이자 바이에른 공작부인으로, 벨기에의 레오폴드 3세 왕과 이탈리아의 마리아-호세 왕비의 어머

니였으며, 벨기에의 보두앵 왕과 알베르 2세, 룩셈부르크의 조세핀-살로트 대공비의 할머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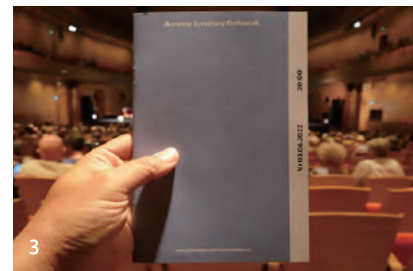
퀸 엘리자베스 홀

(Queen Elisabeth Hall 2016-현재)

2011년, 같은 부지에 있는 세 번째 콘서트 홀인 새로운 퀸 엘리자베스 홀이 준공되었다. 외관의 파사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잉글랜드 맨체스터의 심슨 허프와 파트너스(Simpson Haugh and Partners), 미국 시카고의 커크가드 어소시에이트(Kirkegaard Associates), 그리고 벨기에 앤트워프의 건설기술국(Bureau Bouwtechniek)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프로젝트는 폴란드런 정부에서 당시 5,720만 유로의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새로운 퀸 엘리자베스 홀은 2016년 11월 25일 현 벨기에 국왕인 필리프 왕의 아내인 마틸드 왕비에 의해 개장되었다.



2 객석에서 바라 본 퀸 엘리자베스 홀 무대
3 앤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4 합창석에서 바라 본 퀸 엘리자베스 홀 내부



음향과 다목적성

음향을 최적화하기 위해 슈-박스 모양의 홀로 디자인 되었다. 공연장 내부 구조물 천장에서 매달린 반사판(이동식 음향 패널)을 통해 소리가 홀에 완전히 투사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측면의 오크 패널과 그 뒤의 콘크리트 벽 사이의 공동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용암 모래로 채워졌다. 퀸 엘리자베스 홀은 기본적으로는 콘서트홀이지만 다기능 홀이다. 홀의 모든 좌석에서 연단까지 좋은 시야가 확보되어 있다. 무대 바닥은 12개의 이동식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대 위의 플라이 로프트에는 조명이 있다. 또한 무대 뒤쪽에는 합창단이나 관객을 위한 70개의 합창단 좌석이 있으며, 무대의 깊이를 늘리기 위해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다.

앤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werp Symphony Orchestra)

앤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16년 11월 새 홀이 개관한 이래 퀸 엘리자베스 홀의 상주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수석 지휘자 엘림 찬과 명예 지휘자 필리프 헤레베헤가 이끌고 있는데 플란데런 공동체의 7개 예술 기관 중 하나인 이 조직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단체 중 하나이다. 리에주의 왕립 리에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OPRL-Orchestre Philharmonique Royal de Liège)와 함께 'Royal 왕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단 두 개의 벨기에 오케스트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전체 이름은 앤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플랑드르의 왕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기도 하다.

1955년 창설 이래 앤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사명은 클래식과 현대 심포니 레퍼토리로, 가능한 한 많은 청중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벨기에에서 오케스트라는 매 시즌 앤트워프의 본거지인 퀸 엘리자베스 홀에서 공연하며, 동 플란데런의 도시 헨트(Gent)의 비즐로케 뮤직센터(Muziekcentrum De Bijloke)와 서 플란데런의 도시 브뤼허(Brugge)의 콘서트 허바우(Concertgebouw



5 기존 외관 벽과 콘서트홀 내부의 완충공간

Brugge), 그리고 브뤼셀의 콘서트 홀인 보자르(Bozar)에서도 공연을 한다. 이는 벨기에의 국토가 넓지 않아서 그러하다. 실제로 안트베르펜과 헨트 그리고 브뤼셀은 반경 30km 내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클래식 음악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2023년 한국인 바리톤 김태한의 우승 소식을 전해들은 바 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쇼팽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린다. 여기서 퀸 엘리자베스의 명칭은 퀸 엘리자베스 홀과 동명이나 실제 콩쿠르의 주요 행사는 수도 브뤼셀에서 행해진다. 하지만 최근 바이올린, 피아노와 첼로 그리고 성악과 작곡 부분까지 확장되면서 예선 일부가 안트베르펜의 퀸 엘리자베스 홀에서도 개최되기도 한다.



‘한국판 에든버러’의 꿈

•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올가을 경기도 파주에서 책과 공연을 중심으로 한 페스티벌이 열린다. (재)출판도시문화재단이 9월 6일~8일 파주출판도시에서 여는 ‘파주페어-북앤컬처’(PFBC)다. ‘파주페어-북앤컬처’는 책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를 시민들과 향유하고, 국외시장에 수출하는 글로벌 콘텐츠 마켓을 지향한다. 3일간 콘서트, 뮤지컬, 연극, 낭독극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프린지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프린지 쇼케이스는 파주페어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8편을 선정한 뒤 우수작 2편에는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에 자리한 파주출판도시는 1989년 국내 출판인들이 모여 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1997년 국가로부터 전략산업기지로 지정받으면서 건설되기 시작했다. 1997년~2007년 출판·인쇄·출판유통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도시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007년~2018년 영상과 미디어 산업을 유치하는 2단계 사업이 이뤄졌다. 성장동력을 출판에서 영화와 미디어로 확대한 것이다. 출판시장 악화에 따른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 파주출판도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주페어-북앤컬처’는 파주출판도시가 새롭게 ‘책과 복합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고영은 (재)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최근 ‘파주페어-북

앤컬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최대 공연예술 축제이자 아트마켓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한국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배우 출신으로 비언어 퍼포먼스 <난타>의 제작자인 송승환을 축제 총감독으로 위촉한 것도 ‘한국판 에든버러’의 기대 때문일 것이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매년 8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4주 가까이 열린다. 지난해는 72개국에서 3,500여 편의 작품이 참가했다. 교회, 식당 등을 개조해서 만든 약 300개 임시극장에서 6만 회 안팎의 공연이 열렸다. 그리고 축제 기간 내내 야외에서는 예술단체들이 관객을 극장에 오도록 공연 일부를 보여주는 무대도 펼쳐졌다. 1947년 제1회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초청받지 못한 8개 팀이 주변부에서 무허가로 공연한 데서 시작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축제로 성장한 것은 참가비를 내면 어떤 예술가(단체)든 공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이 펼쳐지지만 세계 각국에서 기획자들이 몰리는 아트마켓으로서 작품 유통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매력이다. 그 결과로 에든버러 프린지의 재정 자립도가 97%에 달하는 점도 전 세계 축제 관계자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한국 공연계에서 ‘꿈의 무대’로 통한다. 이렇게 된 데는 <난타>가 큰 역할을 했다. <난타>

는 1999년 한국 공연으로는 처음 프린지에 참가해 현지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이듬해 서울에 전용관을 마련하는 한편 2004년 뉴욕 오프브로드웨이에 진출해 아시아 작품으로는 처음 전용관을 열고 1년6개월간 공연했다. 이후 국내는 물론 태국, 중국에도 전용관을 두는가 하면 지금도 투어공연을 꾸준히 열고 있다.

이런 성과 덕분에 <난타>는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실제로 비언어 퍼포먼스 <점프>와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밤의 꿈>(양정웅 연출)을 비롯해 적지 않은 작품들이 에든버러 프린지에서 호평을 받은 후 해외 공연장과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경쟁력 있는 국내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 거점 확보 차원에서 에든버러 프린지에 참가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한국판 에든버러’를 표방한 것은 ‘파주페어-북앤컬처’가 처음은 아니다. 지금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공연예술축제와 아트마켓이 만들어질 때마다 똑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출범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판 에든버러를 지향한 공연예술축제나 아트마켓 가운데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지원 중단으로 축제가 오래 유지되지 못한 것도 여럿이다. 이런 전례를 알고 있는 송승환 총감독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파주페어-북앤컬처’의 안정화까지 최소 5~10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고영은 이사장은 5년 이내에 재정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미묘한 차이를 보여줬다.

여기서 국내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한국판 에든버러’의 의미는 축제든 아트마켓이든 공연예술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희망사항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에든버러 프린지 같은 형태가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공연예술을 사고파는 아트마켓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아트마켓 기능 축제’형이다. 바로 에든버러 프린지가 대표적이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관객의 관람 외에 프로듀서와 예술가(단체)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플랫폼이 된다. 아비뇽 페스티벌의 프린지에 해당하는 ‘아비뇽 오프’도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작품의 쇼케이스를 중심으로 한 ‘견본시’ 형태로, 캐나다 공연예술마켓(CINAR)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는 공연예술



1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2 난타 ©PMC프로덕션
3 연극 '웃음의 대학'에 출연중인 송승환 ©연극열전

축제가 열릴 때 아트마켓을 여는 ‘축제 연계’형이다. 현재 서울아트마켓(PAMS)이 서울국제공연예술축제(SPAF)와 연계해 열고 있다. 네 번째는 극장과 축제 관계자가 모여 총회를 열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쇼케이스를 곁들이는 ‘네트워킹’형이다. 미국공연기획자협회총회(APAP)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트마켓 기능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형태는 주로 비유럽권의 공연예술 분야의 후발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만든 것이다. 미국이야 워낙 시장이 크다보니 전세계에서 관계자들이 몰리지만 아시아에서는 해외 축제와 공연장 관계자들을 직접 초청해 자국의 공연예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최근 아시아의 아트마켓은 쇼케이스 중심에서 탈피해 교류의 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아시안아트마켓이 컨버스아시안스, 일본의 도쿄아트마켓이 요코하마공연예술미팅으로 바뀐 것이 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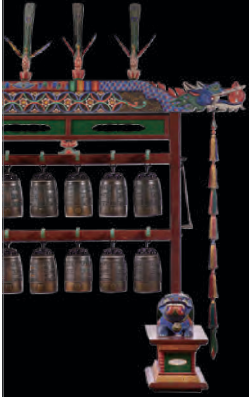
‘한국판 에든버러’는 귀에 속 박히는 수식어지만 되레 한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을 짜는데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024 국립국악원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

종묘제례악

宗廟祭禮樂



JONGMYO JERYEAK



2024. 8. 23.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출 남동훈 | 예술감독 이건희(정악단), 김충한(무용단) | 출연 국립국악원 정악단, 무용단 | 해설 김영운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 티켓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 공연문의 051-607-6000

INVITATION TO THE ARTS

㉑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㉒ 등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㉓ 무지크바움 070-7692-0747

㉔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㉕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㉖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㉗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㉙ BEXCO 오디오orium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㉚ KBS부산홀 620-7181

㉛ SMA아트홀 1600-1602



SUN	MON	TUE	WED
<p>공지</p> <p>부산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일시 폐쇄 안내 부산문화회관 부설주차장 확장공사를 위해 출입을 전면 금지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폐쇄기간: 2024. 7월~8월(기간변동 가능) *7월 1일(월) 이후 부설주차장 내 차량 <u>진/출입 불가</u> ※ 해당기간 내 대중교통 및 타 주차장 이용을 당부드립니다.</p>	1	2	3
<p>7</p> <p>2024 김창완밴드 전국투어 '개구쟁이' 18:00 대 12만1천원·11만원·9만9천원 (주)파이오니아(1811-8202) 에클레뜨 제2회 정기연주회 '쇼미더클래식' 17:00 중 무료(문자예약)/에클레뜨(010-4891-6179)</p>	8	9	10
<p>14</p>	15	16	<p>부산예술고등학교 2024 '제35회 무용정기공연' 대 부산예술고등학교(5)</p>
<p>21</p> <p>제5회 부산국제 댄스그랑프리 12:00 대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p>	22	23	<p>브니엘예술고등학교 2024 '제26회 무용예술제' 19:30 대 브니엘예술고등학교</p>
<p>28</p> <p>2024년 제40회 전국공모 KBS 부산 무용콩쿠르 09:00 대 KBS부산방송총국(620-7327)</p>	29	30	<p>한국창작합창21 2024년 제17회 작곡발표회 '음악의 길로 나아가다' 19:30 중 초대/한국창작합창21(010-7600-4514)</p>



WED	THU	FRI	SAT
3	4	5	6
	<p>부산시립예술단 토코오페라 '마술피리' 10:30, 14:0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5, 3113)</p>	<p>부산시립예술단 토코오페라 '마술피리' 10:30, 14:0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5, 3113)</p>	<p>제6회 동아 피아노 앙상블의 밤 15:00 중 초대/동아대학교(200-1758, 1760)</p>
10	11	12	13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교육공연 '재밋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5, 3113)</p>	<p>지브리 영화음악심포니 콘서트 with 오케스트라 19:30 대 9만원·7만원·4만원 (주)로엔그린뮤직엔터테인먼트(02-2038-866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교육공연 '재밋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5, 3113)</p>	<p>제17회 엠파이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8:30 중 무료/엠파이스 플루트 오케스트라(010-8633-4792)</p>
17	18	19	20
예술제 19:00 (15-8106)	<p>제57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같은 속의 다름' 19:30 대 2만원·1만5천원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독창회 '연(緣) 그리움을 노래하다' 19:30 중 초대/박소연(010-5897-0388)</p>	<p>☎ (재)부산문화회관 미술관 옆 콘서트홀 II '젊음과 바다' 19:3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5회 부산국제 댄스그랑프리 12:00 대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 박지은 피아노 독주회 '루드비히의 판타지' 17:00 중 무료/박지은(010-5799-5890)</p>
24	25	26	27
24 세빛제 19:30 (1513-9710)	<p>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부산 월드 시네마 콘서트 19:30 대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영아츠컴퍼니(1544-4641) 2024 부산채임버뮤직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19:30 중 부산채임버뮤직소사이어티(510-1747)</p>		<p>2024년 제40회 전국공모 KBS 부산 무용콩쿠르 09:00 대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2024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4th 프로젝트 '다시 보다' 18:00 중 초대/한국춤프로젝트 가마(010-8577-6429)</p>
31	<p>전시실</p> <p>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7월 2일(화)-10월 27일(일)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7:00 (오후 6:00 입장 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성인(20세 이상) 2만원, 청소년(14~19세) 1만6천원, 어린이(3~13세) 1만2천원 ·문의: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1661-1079</p> 		<p>전시실</p> <p>부산문화회관이 보다 더 나은 시설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무대/시설 점검 및 개선 공사로 공연장별 휴관에 들어갑니다. 하반기 점검 기간(7월 29일~8월 12일)</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
<p>7</p> <p>부산문화회관이 보다 더 나은 시설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무대/시설 점검 및 개선 공사로 공연장별 휴관에 들어갑니다.</p> <p>하반기 점검 기간(7월 29일~8월 12일)</p>	<p>1</p>	<p>2</p>	<p>3</p> <p>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김옥련발레단 '운수 좋은 날' 대 김옥련발레단(010-7...</p>
<p>7</p> <p>Project: Choral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17:00 대 무료/오민성(010-4725-7714)</p>	<p>8</p>	<p>9</p>	<p>10</p> <p>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극단 누리에 '줄없는 나무' 소 극단 누리에(010-419...</p>
<p>14</p>	<p>15</p>	<p>16</p> <p>브니엘예술고등학교 2024 세빛제 '제26회 정기연주회(실용음악)' 19:00 대 브니엘예술고등학교(513-9710)</p>	<p>17</p> <p>브니엘예술고등학교 2024 '제26회 정기공연(뮤지컬)' 대 브니엘예술고등학교(5...</p>
<p>21</p> <p>2024 이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목소리에 빠지다' 15:00 대 이안오케스트라(010-2290-9463)</p>	<p>22</p>	<p>23</p> <p>부산시립합창단 2024 Summer Fantasy '퀸 심포니'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4</p>
<p>28</p> <p>연극 '집을 떠나며' 15:00 소 전석 3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29</p>	<p>30</p>	<p>31</p>

ED	THU	FRI	SAT
3	4	5	6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날' 14:00 (010-7167-7200)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김옥련발레단 '운수 좋은 날' 14:00 대 김옥련발레단(010-7167-7200)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김옥련발레단 '운수 좋은 날' 14:00, 19:30 대 김옥련발레단(010-7167-7200)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사운드팩토리판 'Real K-pop' 10:30 소 사운드팩토리판(010-8012-2613)	
0	11	12	13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인형' 10:30 (010-4979)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극단 누리에 '줄없는 나무인형' 10:30 소 극단 누리에(010-4190-4979)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19:30 대 10만원·8만원·5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극단 누리에 '줄없는 나무인형' 10:30 소 극단 누리에(010-4190-4979)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14:00 대 10만원·8만원·5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7	18	19	20
4 세빛제 ' 19:00 (010-9710)			손태진&에녹 콘서트 in 부산 14:00, 18:00 대 15만4천원·13만2천원·11만원 (주)공연마루(1588-0766)
4	25	26	27
		연극 '집을 떠나며' 19:30 소 전석 3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이킴&소란' 17:00 대 12만1천원·8만원·9만9천원·8만8천원·6만6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연극 '집을 떠나며' 15:00 소 전석 3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1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background-color: #e67e22;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전시실</div> <div> <p>구스타프 클림트 레플리카</p> <p>7월 5일(금)-8월 11일(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6:00(매주 월-화요일 휴관) · 관람료: 균일 8천원(13세 미만 어린이 3천원 할인) ·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div> </div>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달콤하게 귀를 녹여줄 두 아티스트의 설레는 만남!

로이킴&소란

감미로움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로이킴,
'소란스럽지 않은' 노래를 선사하는 4인조 록밴드 소란.
감상적인 발라드부터 유쾌한 팝, 록음악까지
달콤하게 귀를 녹여줄 두 아티스트의 설레는 만남이
7월 2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감성 싱어송라이터 로이킴

오디션 프로그램이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 잡고 있던 2012년,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던 '슈퍼스타K4' 시즌에서 소위 '엄친아'로 이목을 끌며 극적인 우승을 이끌었던 로이킴은 시즌 종영 후 정식 데뷔전 발매된 디지털 싱글 '봄봄봄'을 통해 가수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젊은 가수로서는 드문 컨트리풍 음악으로 데뷔하는 우직함은 로이킴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봄봄봄'은 당시 싸이, 조용필이라는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을 뚫고 차트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로이킴은 2013년 6월 발표한 정규 1집 'Love Love Love'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골든 디스크'에서 그해 남자신인상 등



일시 7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좌석 **VIP**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5%
 ※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시
 1매당 1천원 중복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을 수상했으며, 이듬해인 2014년 2집 'Home'에 이어 2015년 3집 '복두칠성', 2017년 EP '개화기(開花期)' 등 본인의 자작곡으로 구성된 정규음반 3장과 EP 1장 외에 다수의 싱글을 발매하며 새로운 남성 발라더의 탄생을 알렸다. 특히 2018년 2월 발매된 '그때 헤어지면 돼'는 가온 차트 공식 PLATINUM 스트리밍(1억 스트리밍)을 달성했으며, 2015년 드라마 '피노키오'의 OST로 타이완 Hito 뮤직 어워즈에서 해외 아티스트 인기상과 APAN 스타 어워즈 베스트 OST상을 수상했다.

그의 독보적인 무기는 타고난 음색과 목소리 톤을 유지하는 것으로, 특히 저음역대에서 편하게 부르는 듯한 감미로운 목소리가 고음역대에서도 유지된다. 그래서 로이킴의 노래는 듣기에는 쉬운데 막상 따라 부르려면 어렵다. 로이킴은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중저음 포크 발라더로 알려졌으나 지난 2022년 발매한 4집 '그리고'부터는 음역대가 상당히 넓어지면서 고음에 약하다는 시선을 지워버리고 탄탄한 실력을 갖춘 베테랑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3월에는 '봄봄봄' 이후 10년만에 선보인 봄 노래인 '봄이 와도'가 발매 직후 각종 음원차트 실시간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봄 시즌송으로 음악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소란스럽지 않은 노래의 4인조 록밴드 소란

2010년 데뷔한 4인조 밴드 소란은 섬세하게 짜인 연주와 듣기 편한 멜로디 속 온기 넘치는 위로, 건강한 소란만의 자존감의 가치를 담아 '소란식 팝'을 선보이는 밴드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객의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소극장 장기 공연 [Perfect Day], 아티스트와 팬들의 물아일체로 소란 대부흥회라 불리는 여름 콘서트, 압도적인 스케일과 과감한 연출로 밴드 공연의 영역을 확장시킨 겨울 콘서트까지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 퀄리티와



관객의 재미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사계절 매진 행렬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소란의 공연은 다른 페스티벌에서조차 기대 이상을 충족시키며, '역시 믿고 보는 소란'이라는 공식을 완성시키기에 이른다.

페스티벌의 황제라고 불리는 '소란'은 지난 2023년 12월, 공연 현장의 생동감을 앨범에서 느낄 수 있게 완벽한 사운드를 구성한 EP [SETLIST]를 발매하며, 페스티벌에서 앨범까지 완벽한 셋리스트를 구성한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음원과 공연 이외에도 보컬 고영배는 안정된 톤과 특유의 위트로 방송과 라디오의 영역을 넘나든다. MBC FM4U '스포왕 고영배'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ITZY, 핑수, 박진영의 팬미팅 MC를 맡을 뿐 아니라 자신의 첫 에세이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를 집필해 교보문고 시 에세이 부문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세우기도 했다. 기타리스트 이태욱은 윤하, BTS의 기타 녹음 세션으로 활동한 이력과 KBS 더 시즌즈 '지코의 아티스트'에서 하우스 밴드 기타리스트로 활동할 만큼 최고의 연주자로 여러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100년의 잠을 깨운 시간을 초월한 명작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7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13일 토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정통 클래식 발레의 교과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부산을 찾는다. 특히 유니버설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이번이 부산 초연무대로, 벌써부터 발레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부산 초연무대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샤를 페로의 유명한 동화 속 이야기를 우아한 발레로 그려낸 고전발레의 대표작으로, 1890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한 후 13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과 더불어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라 불리는 작곡가 표트르 차이콥스키와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가 탄생시킨 ‘3대 발레 명작’ 중 하나로, 동양에서는 최초로 유니버설발레단이 1994년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국내 초연, 한국 발레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이 작품으로 2000년 미국과 캐나다 투어를 통해 ‘벤쿠버 선’이나 ‘시카고 트리뷴’ 같은

해외 우수 언론의 격찬을 받음으로써 세계 정상급 발레단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황실발레의 황금기를 느낄 수 있는 화려한 무대

특히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러시아 황실 발레가 절정을 이뤘던 19세기 작품으로 플로레스탄 왕궁을 재현시킨 웅장한 무대 세트와 의상, 형식미의 절정을 보여주는 군무의 완벽한 대형과 주역의 화려한 그랑 파드되, 여섯 요정들의 바리에이션(무용수가 각각 추는 경쾌하고 짧은 춤), 페로의 동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디베르티스망(Divertissement: 고전 발레에서, 이야기의 줄거리와 관계없이 하나의 구경거리로 삽입하는 춤) 등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낭만 발레 시대에 생긴 2인무(Pas de Deux)를 한 단계 발전시킨 그랑 파드되(Grand Pas de Deux)가 처음 적용된 작품으로, 이 밖에도 고난도 테크닉이 조화를 이룬 매력적인 춤의 향연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반면 고전발레의 엄격한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고 난도의 작품으로, ‘고전 발레의 교과서’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모든 무용수들이 어려워하는 힘든 작품이기에 세계적으로도 자주 접하기 힘든 명작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1994년 국내 초연 당시 예술감독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연출가 나탈리아 스피치나 등 해외의 명장들이 내한하여 마린스키발레단 버전의 정통을 그대로 살렸다는 평을 받았다. 원작과 다른 점은 개정 안무가 올레그 비노그라도프에 의해 마리우스 프



2022 잠자는 숲속의 미녀 © Universal Ballet_Photo by Kyoungjin Kim



2022 잠자는 숲속의 미녀 © Universal Ballet_Photo by Kyoungjin Kim

티파(원안무가)의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작품을 밀도 있게 각색하여 극 전개에 속도감을 주었다는 점이다. 수많은 발레 작품 중에서도 이 작품은 공연시간이 긴 편으로 원작을 포함한 여타 버전들은 3시간을 훌쩍 넘긴다. 유니버설발레단은 마린스키 스타일의 특징인 화려함과 정교함은 그대로 살리되,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여섯 요정들의 춤을 2막의 결혼식 축하연으로 대체하는 등 바リエ이션과 디

베르티스망을 집약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스토리 전개를 재구성함으로써 공연시간을 압축하고 관객들의 몰입감을 유지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공연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www.bscc.or.kr) 및 인터파크(tickets.interpark.com)에서 가능하며,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시 1매당 1천 원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

주요 장면

<1막> 오로라 공주와 왕자 4인의 '로즈 아다지오'

1막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은 '로즈 아다지오'로,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 파티에서 오로라 공주가 장미꽃을 건네며 청혼하는 4명의 왕자들과 교대로 손을 잡고 균형을 맞추며 추는 춤이다.

<1막> 100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진실한 키스

1막 3장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마법에 걸린 공주와의 달콤한 키스 장면이다. 짧지만 극의 전개상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부분이기에 관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장면이기도 하다.

<2막> 결혼식 피로연에 등장하는 샤를 페로 '동화 속 주인공들'

2막은 공주를 축복하는 다섯 요정들과 오로라 공주의

수호신인 라일락 요정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춤과 함께 페로의 동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발레 팬이라면 익살스러운 연기와 수준 높은 테크닉을 기대해도 좋다.

<2막>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결혼식 '그랑 파드되'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결혼식에 등장하는 '그랑 파드되'이다. 공주가 왕자에게 지탱하며 추는 춤으로 절도와 기교가 담긴 '아다지오'에 이어, 남성의 힘과 박력이 느껴지는 데지레 왕자의 '솔로 바リエ이션', 우아한 오로라 공주의 '솔로 바リエ이션'이 연이어 펼쳐진다. 마지막 피날레는 두 무용수가 함께 추는 환상적인 파드되 '코다'로 마무리한다.

클래식과 미술이 만나다

미술관 옆 콘서트홀 II 젊음과 바다

7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미술해설 이주현



음악해설 손지현



연주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클래식기타 전승현

클래식과 미술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 ‘미술관 옆 콘서트홀’ 두 번째 무대가 7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미술관 옆 콘서트홀’은 지난해 오페라와 그림, 공연이 어우러지는 레저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은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로, 특별한 키워드로 묶어진 음악과 미술작품을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지난 5월 ‘숲의 정령’(5월 10일)에 이은 두 번째 무대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젊음과 바다’(7월 19일)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음악과 미술작품을 준비하고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미술 작품으로는 부산의 정체성에 딱 맞게 바다를 소재로 한 그림들을 살펴본다. ‘우리의 눈과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바다’, ‘이상과 꿈,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한 청춘’이라는 주제로 바다와 여름, 태양, 열정을 소재로 한 작품들 안에서 젊음의 상징을 좇아가본다. 여름의 부산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바다의 푸른 빛에 반해 ‘지중해’를 그린 화가 라울 뉘 피를 비롯하여 스페인 화가 호아킨 소로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윌리엄 터너의 작품들과 신화 속 등장하는 바다 그림들

도 함께 감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서양미술사에 있어 가장 유명한 사랑의 아이콘 같은 클림트의 ‘키스’를 비롯하여 피에르 오귀스트 코, 카를 스피츠베크, 필립 칼데론 등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도 지난해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던 아트 스토리텔러 이주현과 클래식 전문 아나운서 손지현이 ‘미술관 옆 콘서트홀’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이주현은 미술평론가이자 미술 이야기꾼으로 지금도 꾸준히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으며 손지현은 부산MBC 공채 아나운서로, 산뜻하고도 깊이 있는 해설로 우리를 음악의 중심으로 이끌어준다.

특히 미술 작품 감상과 함께 이번 무대에서는 젊음을 상징하는 열정을 담은 춤곡들도 만나본다. 섬세한 음악적 감성과 비루투오소적인 테크닉을 겸비한 클래식 기타리스트 전승현과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이 기타솔로곡인 첫 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타레가)을 시작으로 ‘차르다시’(몬티), ‘헝가리무곡 제5번’(브람스), ‘리베르탱고’(피아졸라), ‘판당고’(마이크 맥린)를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4 SUMMER FANTASY 퀸 심포니

7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부산 시립합창단의 시원한 음악선물 '2024 Summer Fantasy'가 7월 2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인 'Summer Fantasy'는 매년 여름, 클래식 위주의 딱딱한 공연에서 벗어나 관객과 합창으로 소통하기 위

해 기획된 무대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대중음악을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영국을 대표하는 록밴드 퀸(Queen)의 주옥같은 히트곡을 엮어 완성한 톨가 카쉬프(Tolga Kashif)의 대편성 교향곡 '퀸 심포니'를 부산 초연으로 들려준다.

2002년 작곡된 '퀸 심포니'는 'Bohemian Rhapsody',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 등 퀸을 대표하는 10여 곡의 명곡을 6악장의 관현악 형태로 녹여낸 작품으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까지 함께하는 대규모 작품이다. 그 해 11월, 런던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로열 필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퀸 심포니' 프리미어를 진행했으며, 이는 ABC TV를 통해 유럽 전역에 방영되기도 했다.

이 곡을 작곡하고 프로듀싱을 담당한 톨가 카쉬프는 2008년 가수 서태지와와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서태지 심포니'로 우리에게 친숙한 뮤지션으로, 영국 왕립음악대학에서 지휘와 작곡을 전공하고 BBC 등 방송사와 런던 필하모닉, 로얄 필



지휘 임희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경성콘서트콰이어



동아대학교 합창단

하모니 등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 겸 음악감독으로 활약했다. 다수의 앨범에 편곡자 및 프로듀서로도 활약해온 세계적으로도 명망있는 영국 클래식 거장이지만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요즘 클래식 트렌트에 발맞춰 OST에서 팝까지 넓은 영역을 커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임희준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대학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경성콘서트콰이어와 동아대학교 합창단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추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연주를 맡는 등 100명의 합창단원과 8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들려주는 웅장하고 장엄한 사운드로 가슴 벅찬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1	3
2	4
	5

- 1 키스, 1907-1909
- 2 아델르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 1907
- 3 나무아래 장미, 1905
- 4 아터호반 호수, 1900
- 5 구 부르크극장의 관객석, 1988

‘황금빛 색채의 마술’ 구스타프 클림트를 만나다

클림트 레플리카展

7월 5일(금) ~ 8월 11일(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일반 8천 원, 13세 미만 5천 원, 24개월 미만 무료

부산시민회관 607-6000, www.bscc.or.kr

두 남녀가 황금빛 옷과 장식에 둘러싸여 입맞춤을 하는 이 그림은 작가나 작품명은 몰라도 누구나 한번쯤은 봤음직한 유명한 작품이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황홀함을 대표하는 이 화려하면서도 관능적인 그림이 바로 ‘황금빛 화가’라 불리었던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The Kiss)’이다.

황금빛 화가 클림트

클림트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한 화가로, 당시 지나치게 형식에 치중하고 권위적이었던 빈 미술가협회에 반발하여 분리파(Sezession)를 결성,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강렬한 상징성과 아르누보 스타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클림트의 작품은 주로 초상화와 누드그림, 장식적 패턴과 금색을 사용한 화가로 유명했는데 이는 귀금속 세공사이자 조각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독창적인 작품들은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지나치게 관능적인데다 죽음의 그림자까지 짙게 풍기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클림트는 분리파의 동료들과도 갈등을 겪게 되면서 빈 분리파를 탈퇴한 후 자신만의 세

계를 구축하는데 몰두했는데 이 때 탄생한 작품이 바로 ‘키스’이다. ‘키스’는 클림트의 마지막 10년동안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특히 현재 전시되어 있는 벨레데레 궁전 전시실을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서 ‘Never leave VIENNA without a KISS’라는 문구로도 유명하다.

클림트의 또다른 작품인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I)’은 클림트가 자신의 후원자이기도 한 아델레에게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한 것으로, 아델레가 사망한 후 남편이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가 나치에게 몰수당했고, 남편은 사망할 때 조카에게 그림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나치 때문에 부모를 잃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조카 마리아 알트만은 전후 그 그림을 소장한 오스트리아 정부에게서 반환받기 위해 길고 고통스러운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하면서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옆의 노이에 갤러리에 소장되게 되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우먼 인 골드’가 바로 이 감동실화를 담고 있다.

전시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레플리카 전시

7월 5일부터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클림트 레플리카展’이 개최된다. 레플리카(replica)는 전시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복제 작품들로 붓터치와 색감 등이 그대로 복원되어 원작의 감동을 최대한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클림트의 삶과 작품세계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부 아카데미즘, 역사주의(1862~1896년), 2부 분리주의자로의 전환기(1897~1900년), 3부 황금시기(완숙기, 1901~1908년), 4부 화려한 양식(1909~1918년) 등 총 4부로 나누어 대표 작품 50여 점이 소개된다. 전시 외에도 직접 나만의 클림트 명화를 완성할 수 있는 명화 도안 색칠하기와 퍼즐 맞추기 등 체험프로그램과 포토존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전시는 8월 11일까지 열리며, 휴관일인 월-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7월 한 달간의 부산음악 여행

2024 부산원먼스페스티벌

우리 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3RD

7월 1일(월) ~ 31일(수)

부산지역 31곳 소공연장
전석 1만원

(사)부산소공연장협의회
557-3369, <http://bsaha.or.kr>



2023년 원먼스페스티벌

소공연장에서 한 달간 펼쳐지는 릴레이 콘서트 ‘2024 부산원먼스페스티벌’이 부산의 7월을 다채로운 음악으로 물들인다.

이번 ‘2024 부산원먼스페스티벌’은 지난 2022년,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가 문화예술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우리동네 문화살롱 페스타’ 세 번째 무대로, 부산의 15개 구·군, 31곳의 소공연장에서 한달간 매일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한차례 열리던 페스티벌을 7월에 이어 10월에도 여는 등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서 예술을 접할 수 있고 예술가와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확대한다. 올해 ‘2024 부산원먼스페스티벌’ 7월 무대에서는 공간별 특색을 반영한 각 참여 소공연장들의 기획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참여 소공연장으로는 BOF아트홀, 구박갤러리, 게네랄과 우제(중구), 문화주소 동방(서구), 스페이스 수정, 포포 스튜디오(동구), 아트센터, 아포지테라스, 영도콘서트하우스(영도구), 공간켓츠, 마루아트홀, 콘레르트보눔(부산진구), 스페이스움(동래구), 가람아트홀, 무지카아트홀(남구), 무사이(북구), 나 놀락(해운대구), 음악풍경(사하구), 금사락, 금정아트홀, 음악당 라온, 카페 0101(금정구), 국제포레뮤직, 카페 진목, 포레스트3002(강서구), 무지크바움(연제구), 엘림아트홀, 카페 아프리카, 필슈파스(수영구), 복합문화공간 더 락, 오페라바움(기장군)으로, 클래식부터 크로스오버, 퓨전국악, 재즈, 밴드,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지면서 관객들은 자신만의 다양한 성찬을 즐길 수 있다. 10월에는 7월 참여 소공연장 외에도 사상구의 공간523을 비롯 지역별 10곳이 더 참여할 예정이다.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는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2024 부산원먼스페스티벌’ 시작을 알리는 ‘프롬나드 콘서트’을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가졌으며, 부산의 신진예술가들을 발굴하는 ‘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라이징스타 콘테스트’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창단 3년 이내의 팀(구성원 중 부산시민을 포함)을 대상으로, 클래식, 국악, 성악, 기악, 재즈, 대중음악 등 모든 음악장르에 한해 가능하며, 7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1차 서류 및 동영상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은 8월 11일 대동대학교 D’Art홀에서 공개오디션을 통해 대상 및 최우수, 장려상 등

총 4개팀을 선발한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가칭 부산소공연장 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첫 발을 내딛은 (사)부산소공연장연합회는 민간 운영체의 소공연장 대표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 지역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반을 제공, 사회적 관계성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매개공간으로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현재 김은숙 대표가 있는 스페이스 옴을 비롯하여 게네랄파우제, 나눌락, 무사이, 음악당 라운, 오선결치팩토리, 필슈파스, 콘체르트보눔, 비비아첼챔버홀, BOF아트홀, 스페이스수정, 마루아트홀 등 12곳의 공연장이 회원 소공연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2023 부산원먼스페스티벌’에서는 86개 팀 328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했으며 3,260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다녀갔다.



2023년 프롬나드 콘서트



2023년 제1회 부산라이징스타콘서트 시상식

일정

1일 (월) 오후 7:00
문화주소 동방

기타, 피아노, 플루트
여름맞이 콘서트

플루트 황미리, 피아노 김재준, 반도네온 김중완, 클래식기타 김경태, 콘트라베이스 김대경, 퍼커션 이영훈으로 구성된 아티스타의 무대. 2017년 ‘더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탱고, 재즈까지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음악을 연주한다.



- 스토리텔링, 피아노/ 이지선
- 바이올린/ 금잔디 • 콘트라베이스/ 박예송
- 미디어아트/ 김병기

3일 (수) 오후 8:00

게네랄파우제

조혜운×민주신 프로젝트
‘NOW JAZZ’

부산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과 재즈피아니스트 민주신, 기타리스트 김경모, 콘트라베이스리스트 황대웅, 드러머 허여정의 특별한 재즈 무대.



탱고의 매력을 선사해온 친친밴드의 무대. 팀명인 ‘CHINCHIN’은 영어로는 가벼운 인사말인 ‘안녕하세요’, 스페인어로는 ‘건배!’, 그리고 한국어로는 ‘친한 친구’의 줄임말을 뜻한다.

- 반도네온/ 김중완 • 피아노/ 이안나
- 바이올린/ 강소연 • 기타/ 김경모(객원)

2일 (화) 오후 7:00
무지카아트홀

음악으로 채색된 그림들
뮤직스토리움 대표이자 피아니스트인 이지선이 진행하는 클래식과 명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4일 (목) 오후 7:00

음악당 라운

Concierto para
CHINCHIN

누구나 탱고음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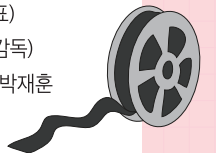


5일 (금) 오후 7:30
필슈파스

양상블 클라온
‘클라온의 선율’

클래식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양상블 클라온의 무대. 팀명인 ‘클라온’은 클래식, 클라리넷, 클라비어의 ‘클’과 즐겁다는 의미의 순우리말 ‘라온’의 합성어이다.

- 클라리넷/ 이환석(필슈파스 대표)
- 피아노/ 박다은(필슈파스 예술감독)
- 바이올린/ 박은경 • 베이스/ 박재훈



6일 (토) 오후 3:00
무지크바움

테너 김준태,
피아노 신세라
'Italian Songs Festival'

계명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이, PARMA 국립음악원 'Arrigo Boito' 성악 최고연주자 과정 및 가곡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우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테너 김준태와 피아니스트 신세라의 무대.



7일 (일) 오후 4:00
복합문화공간 더 락

밴드 줌드
'Cosmic Tension'

모던록에서부터 팝, 포크, 펑키, 애시드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줌드의 무대. 비틀즈의 곡 'Hey Jude'에서 이름을 가져온 락밴드로, 비틀즈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

- 보컬/ 이상 • 기타/ 김중근
- 키보드/ 오현주 • 베이스/ 황경준



8일 (월) 오후 7:30
오페라바움

오페라바움
제2회 초록향기 콘서트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을 비롯한 정호교, 정달숙, 고성현, 고정현이 솔로에서부터 트리오, 콰르텟 등 다채로운 연주를 들려준다.



9일 (화) 오후 7:00
금사락

사운드 웨이브 콘서트
'곡두'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인 디음악인 곡두의 무대. '곡두'는 환영이나 신기루, 허깨비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안위와 신명의 교감을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풀어내고 있다.



10일 (수) 오후 7:00
아트센터

해설이 있는
클래식기타 듀엣

'A night at the Opera'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종대, 허건의 듀오 무대.

- 해설/ 조윤환(칼신신학대 교수)



11일 (목) 오후 7:30
BOF아트홀

Maestro Jang과
함께 하는 한국가곡

국제문화예술교육원 장병혁 원장의 진행과 해설로 다채로운 한국가곡을 감상할 수 있다.

- 바리톤/ 오세민 • 테너/ 김지현
- 바이올린/ 최호린 • 피아노/ 이호진



12일 (금) 오후 7:30
카페 진목

홍영호 재즈밴드
'From Nature'

드러머 홍영호를 중심으로 피아니스트 강해인, 보컬 정세미, 색소폰니스트 손태로, 트롬보니스트 심규성, 베이스리스트 신세영으로 구성된 홍영호 재즈밴드의 무대.



13일 (토) 오후 3:00
나눔락

최은아 트리오
'Le voyage'

감미롭고 서정적인 재즈 연주를 들려주는 최은아 트리오의 무대.

- 재즈보컬/ 최은아
- 피아노/ 임정원 • 베이스/ 박주민



14일 (일) 오후 4:00
가람아트홀

듀오 포레 'Cinam Music for Duo'

친친탱고 대표이자 반도네오니스트 김종완과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상임지휘자로 있는 클래식기타리스트 김경태의 듀오 무대.

15일 (월) 오후 7:30
스페이스 수정

클래프 앙상블
'Summer Night Quartet'

플루트 이호권, 바이올린 김상화·이동희, 비올라 김민경, 첼로 이강수 등 실력있는 젊은 앙상블인 클래프 앙상블의 무대. 모차르트의 '플루트사중주 가장조'와 보르딘의 '현악사중주 제2번'을 들려준다.



16일 (화) 오후 7:30
금정아트홀

Amici Musicali
'Fall In Love'

오페라 아리아에서부터 뮤지컬넘버, 가요, 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풍부한 화음으로 편곡하여 노래하는 클래식 아카펠라 그룹 아미치 뮤지칼리(Amici Musicali)의 무대.

- 출연/ 손유경, 김선미, 김지수, 최유진, 권아영



17일 (수) 오후 7:00
원불교 부산역사기념관

프로뮤지카

'청포도 익어가는 계절에'

테너 김준연(국립창원대 외래교수), 바리톤 강경원(남원시 오페라단 단장), 베이스바리톤 박순기(동아대·고신대 외래교수)로 구성된 프로뮤지카의 무대.

- 피아노/ 신주옥



18일 (목) 오후 7:30
구박갤러리

Poem de Amour

시(詩)를 가사로 한 가곡을 좋아하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P.o.e.m의 무대.

- 플루트/ 남유빈 • 소프라노/ 김여진, 계은송
- 피아노/ 조예림



19일 (금) 오후 7:30
스페이스음

**메츠클라의
'Vamos Tango'**

5인조 오리엔탈 탱고음
악팀 메츠클라의 무대.

- 바리톤/ 김경한 • 색소폰/ 이기봉
- 클래식기타/ 고정현 • 피아노/ 윤혜빈
- 콘트라베이스/ 한도경



20일 (토) 오후 7:00
무사이 극장

**플레이하우스
'Summer Note'**

현악기와 피아노로 구
성된 5중주 '플레이하우
스'의 무대.

- 피아노/ 강시온 • 바이올린/ 김수현, 박인성
- 비올라/ 김지일 • 첼로/ 김한솔



21일 (일) 오후 6:00
포포 스튜디오

쿠나x현준 'Reggae Nite'
밴드 Hotter Than July
의 보컬이자 드러머 쿠
라(KUNA)와 '7번국도'
의 기타리스트 현준의
무대.



22일 (월) 오후 7:30
공간갯츠

**라틴재즈밴드 갯츠
'Welcome to Cuba'**

라틴음악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라틴재즈밴드
갯츠의 무대.

- 보컬/ 김소현, 배수진
- 퍼커션/ 이영훈, Alain Ortiz Samada
- 베이스/ 박주민 • 피아노/ 정시윤, 백원우
- 플루트/ 김선훈 • 알토색소폰/ 하재현
- 테너색소폰/ 이종현 • 트럼펫/ 천세훈
- 트롬본/ 신진호



23일 (화) 오후 7:00
카페 0101

헤이브와 함께하는 '퓨전국악 속으로'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에 판소리를 엮어 현

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국악의 대중화를 추
구하는 모던 판소리 국
악그룹 헤이브의 무대.

- 소리/ 박세미
- 무용/ 김지혜
- 대금/ 곽향아 • 가야금/ 박소현
- 장구/ 이창호 • 피아노/ 김영준



24일 (수) 오후 1:00
국제포레뮤직

**라 뮤즈가 들려주는
아이가 듣는 첫 클래식**
클래식 음악에 얽힌 에
피소드를 다양하게 풀
어내며 클래식에게 가
깝게 다가가고 있는 앙상블 라 뮤즈의 무대.

- 플루트/ 황미리 • 첼로/ 김기도
- 피아노/ 정아름



25일 (목) 오후 7:00
영도콘서트하우스

**영도CH앙상블
'클래식 인 더 가든'**

이웃들에게 조금 더 가
깝이 다가갈 수 있는 다
채로운 클래식 무대를
선보이는 영도CH앙상블의 무대.

- 플루트/ 황민지 • 바이올린/ 박은경, 김유화
- 첼로/ 김하늘 • 피아노/ 김다은



26일 (금) 오후 7:00
포레스트3002 야외잔디밭

**모닥불 콘서트
with 강혜인 콰텟**

재즈피아니스트 강혜
인, 보컬 정세미, 색소포
니스트 손태호, 베이스
스트 심규환, 드러머 홍영호로 구성된 강혜
인 콰텟의 무대.



27일 (토) 오후 3:00
콘레르트보능

**휴(HUE)와 함께하는
세계의 민요여행**

소프라노 김지현과 테
너 류무룡이 부산에서



결성한 국내 최초 혼성 팝페라 듀오 '휴(HUE)
의 무대.

- 편곡, 피아노/ 강현민 • 반도네온/ 김종완
- 클래식기타/ 김경태

28일 (일) 오후 4:00
카페 아프리카

**Musician's Pick
by 레트로스펙트**

뮤지션이 추천하는 숨
겨진 재즈명곡 콘서트.

- 재즈피아노/ 김대규 • 보컬/ 주민지
- 베이스/ 박주민 • 드럼/ 한정훈



29일 (월) 오후 7:00
영도 아포지테라스

**도담앙상블
'지브리 영화음악이
흐르는 여름 콘서트'**

작곡가 강현민을 주축
으로 2019년 결성된 퓨
전 클래식 앙상블인 도담앙상블의 무대.

- 편곡, 사회 강현민 • 플루트/ 조다은
- 클라리넷/ 강철주 • 피아노/ 손안나
- 바이올린/ 김민화 • 첼로/ 정혜주



30일 (화) 오후 8:00
마루아트홀

**김경민 트리오의
JAZZ 향연 '사랑의 기적'**

네덜란드 유학파 출신
의 프로 전문 연주자들
로 구성된 재즈밴드 김경민 트리오의 무대.

- 피아노/ 김경민 • 베이스/ 박주민
- 드럼/ 송태윤 • 보컬/ 박상진(게스트)



31일 (수) 오후 7:30
엘림아트홀

클래식 카바레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
주하는 클래식 전문 연
주자들로, 엘림아트홀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
고 있는 팀 엘림의 무대.

- 소프라노/ 임혜정, 엄남이
- 테너/ 이광진 • 오보에/ 조유미
- 피아노/ 임상무 • 바이올린/ 권아름



제19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아이에게겐 감성을, 어른에게겐 감동을!

7월 10일(수) ~ 14일(일)

영화의전당, 중구 유라리광장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듬이극장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사무국
051-743-7652, www.biky.or.kr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최가 되어 열리는 참여형 영상문화축제 ‘제19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이하 BIKY)’가 7월 10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BIKY는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상문화를 인지시키고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지난 2005년 프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특히 올해 BIKY는 내년 스무살을 맞이하는 영화제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하면서, 프로그램 명칭을 개정하고 새롭게 정비했다. 과거 주제별 섹션 명칭은 흥미로웠으나, 한편의 영화가 하나의 주제가 아닌 여러 주제를 아우르는 것이 대부분인만큼, 영화제의 보편성을 기조로 삼는 국제 어린이청소년영화제들의 프로그램명을 참고

하여 섹션명은 연령별로 ‘BIKY 키즈’, ‘BIKY 유스’, ‘BIKY 유스 플러스’로 개칭했다. BIKY의 전통이자 얼굴인 경쟁부문 ‘레디~액션!’은 기존 틀과 선정 방식을 유지했고 오히려 상영작 편수를 늘리며 강화하였다. 또한 BIKY는 이전부터 세부화된 연령 표시를 실행했는데 조금 더 세려된 방식을 취하고자 나이별 색깔띠를 구성하여 연령별 섹션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으며 ‘BIKY 키즈’, ‘BIKY 유스’, ‘BIKY 유스 플러스’를 통해 수용하기 어려운 작품들은 ‘비욘드 BIKY’를 통해 새로운 영화들의 구별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여름밤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야외상영작으로 마련되었던 ‘야외극장-달빛별빛’은 올해부터 ‘달빛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친밀하게 다가간다.

올해 BIKY 초청작품은 모두 34개국 113편(장편 30편, 단편 83편)으로, 이 중 프리미어 80편이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난해 163편(프리미어 124편)에서 올해 113편(프리미어 80편)으로 상연 편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상영일수도 7일에서 5일로 조정했다. 그러나 상영작 중 프리미어 편수의 비율로 따지자면 신작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BIKY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공식 경쟁부문인 ‘레디~액션!’은 올해 44개국 465편의 출품작 중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BIKies)의 예선 심사를 거쳐 15개국 47편의 작품이 본선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어린이·청소년 영화인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레디~액션! 12’, ‘레디~액션! 15’, 그리고 ‘레디~액션 18’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특히 이번 섹션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 올해는 ‘레디~액션!’의 편수를 늘림으로써 영화제 상영작 중 한국단편영화의 비중이 늘기도 했지만 초청부문에서도 한국 장편영화가 세 편이나 상영되는 등 한국영화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개막작 '별의 메아리'



BIKY 키즈 '짱뚱이네'



BIKY 유스 '성장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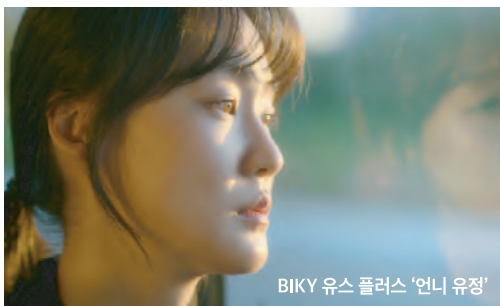
초청부문인 'BIKY 키즈', 'BIKY 유스', 'BIKY 유스 플러스'는 각각 10세 이하, 11세에서 14세 이하, 15세에서 18세 이하로 구분되어 올해는 장편 22편, 단편 32편이 상영된다. 올해는 동시대에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통해 넓고 깊어지는 어린이 영화의 추세에 맞추어 '비온드 BIKY'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비온드 BIKY'는 어린이·청소년영화라는 통념을 뛰어넘고자 하는 영화뿐만 아니라 동시대 영화의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 어린이, 청소년 영화사에 이정표를 세운 감독들의 회고전 및 특별전으로 마련되는 'BIKY 클래식'도 새롭게 신설됐다. 올해 첫 번째 주인공은 일본의 80년대와 90년대에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특유의 스타일로 다뤄온 소마이 신지 감독의 대표작 '이사', '태풍클럽' 등 두 편을 소개한다. 비키 클래식은 상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영이벤트인 'BIKY 클래스'를 통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 상영작은 그 어느때보다 다양한 성장의 고통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마지막 날들', '메이저 톤으로', '보이 인 더 풀', '안녕, 안녕'처럼 상실과 유년기의 신비를 오가며 펼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관객과 만난다. 또, 성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축구소녀 모나'처럼 시리아 난민 소녀가 베를린의 축구팀 일원이 되는 상황도 있고, '작고 거대한 마을'처럼 개발의 뒷면에서 펼쳐지는 모험극도, '보트 피플'처럼 과거의 기억을 다루는 성장사도 있다. 한국 단편들의 제목은 성장의 어려움으로 가득하다. '성장 클리닉', '중력버티기', '집 위의 난파선', '챔피언'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챔피언'은 이주의 현실과 성장의 어려움을 다룬 작품으로 최근 성장담의 한 축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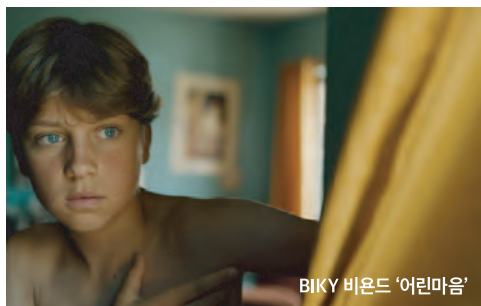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영화의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장르는 누가 뭐래도 애니메이션이다. 올해 BIKY는 전 부문에 걸쳐 다양한 단편과 장편 애니메이션을 선보이는데, 이 중에서도 단편 애니메이션의 아주 짧은 길이와 오래 남는 여운이 인상적이다. 국내 작품으로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화제작이었던 '눈눈눈'이나 클레르몽 페랑에서도 소개된 '건전지 엄마', 그리고 '집 위의 난파선'과 같이 최초로 소개되는 작품을 통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성장한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의 현재를 상영작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밖에 영화제 기간동안에는 영화의 집을 채우는 아카이빙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토론을 벌이는 BIKY 포럼 '모음, 교육, 그리고 또 다른 비전-아카이브의 숲을 그리다'가 7월 12일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며, '영화포스터 그림공모' 수상작 전시회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 개막식은 7월 10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최된다. 개막작으로는 캐나다 영화감독 파트릭 보아빈의 영화 '별의 메아리'로, 사고로 동생을 잃었지만 동생의 사라짐이 외계인이 한 일라 생각하는 형을 통해 상실과 애도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리움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이 영화에 출연한 주인공 어린이 배우가 멀리서 찾아와 개막식을 빛내준다.



BIKY 유스 플러스 '언니 유정'



BIKY 비온드 '어린마음'



BIKY 클래식 '태풍클럽'

추억을 되새기며 희망찬 미래를 그린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40주년 기념음악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40주년 기념음악회
불혹의 나이, 100년을 꿈꾸며...



강혜진 부산대학교 강사

1965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었고, 1970년대 후반 이후 국악관현악의 연주 형태가 안정되었다. 1980년대에는 국악관현악곡의 레퍼토리가 축적되어 전통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관현악의 형태로 여러 작곡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984년 5월 23일에 창단되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최초로 관현악단의 형태로 구성된 연주 단체가 마련된 것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창단 이후 여러 작곡가들에게 새로운 곡을 위촉하여 부산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었다. '부산' 하면, '바다'. 특히, '바다'를 소재로 한 위촉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5월의 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984년 창단일에 맞추어 40주년 기념음악회를 선보였다. 공연 시작 전, 대극장 로비는 부산의 국악 애호가들로 붐볐고, 미리 공연장 안에 자리한 관객들은 설레는 표

정으로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제4대 수석지휘자 배양현 교수의 사회로 공연의 막이 열렸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역사를 비롯하여 그동안 악단을 거쳐 간 여러 지휘자들과 연주곡목들에 대한 사회자의 설명을 들으며 연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배가되었다.

첫 번째 곡, '1984... 그날의 시작'. 이 곡은 김창환 작곡가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위촉곡 5곡의 중요한 선율들을 새롭게 구성한 곡이다. 1984년 첫 위촉곡 '만선(황의중 작곡)'에서, 1988년 위촉곡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현악(이상규 작곡)', 1994년 위촉곡 '풍어(김영재 작곡)', 창단 20주년 기념 위촉곡인 2004년 '꿈의 바다(정동희 작곡)', 1997년 위촉곡 '축제'(이준호 작곡)까지, 김창환 작곡가는 기존 위촉곡들이 갖고 있던 특징을 그대로 살려 국악관현악 작곡기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곡을 구성했다고 한다. 연주가 시작되자 지난 40년의 추억이 담긴 연주 사진과 영상들이 무대



배경 스크린에 띄워졌다. 음악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귀에 익은 선율들이 연주되는 매순간, 관객들은 그 음악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렸을 것이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스크린 속 옛된 모습의 연주자들은 중년이 되었고, 관현악곡의 스타일도 변하였지만, 그 음악과 함께했던 추억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두 번째 곡, 김희조 작곡의 단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단소 수상곡'은 단소에 장명화, 가야금에 장혜숙, 부산시립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한 두 원로 연주자의 협연으로 연주되었다. 세 번째 곡, '단국신화'는 제2대 수석지휘자 김영동이 1983년에 작곡한 곡으로, 김영동이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강림-백의-홍익'으로 구성된 전체 3장 중 2장 '백의'에서는 이희재(남창)와 김윤지(여창)가 하늘과 땅,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내용의 정가를 들려주었다. 1980년대 정가가 가미된 정악풍 국악관현악의 면모를 엿볼 수 있어서 오히려

신선한 무대였다.

다음으로는 이지영 편곡의 남도민요와 경기민요 모음곡이 제1대 예술감독 김정수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박성희, 정성희, 김보연, 이소정, 네 명의 창자(唱者)가 관현악 반주에 맞춰 '육자배기-동백타령-노랫가락-매화타령-뱃노래'를 불렀다. 민요는 국악의 갈래 중에서도 지역적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음악 장르이다. 남도민요와 경기민요, 서로 다른 지역을 배경으로 탄생된 민요가 하나의 관현악곡 안에서 아무런 이질감 없이 조화롭게 연주되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곡, 이정호 작곡의 40주년 기념 위촉곡 '국악축전 미래' 연주로 이 날 공연은 절정에 이르렀다. 역동감 넘치는 밝은 에너지를 가득 담은 관현악 선율들이 관객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부산시립관현악단의 미래가 이 곡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길 염원하던 순간이었다. 지휘를 마친 이동훈 예술감독의 표정에도 벅찬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40주년 기념'이라는 무게감 있는 타이틀을 걸고 선보인 공연.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이번 공연에는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기 위해 무대 구성과 곡목 선정에 각별한 노력이 들어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악단에 몸담았던 여러 연주자들과 지휘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40주년 기념이라는 공연의 의미가 더욱 빛났다.

시간은 단절 없이 계속 흘러가지만,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40주년 기념연주회를 감상하는 동안 그런 기분을 느꼈다. 연주자들은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며, 관객은 여러 악기들이 빚어낸 조화로운 선율을 들으면서,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한 추억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던 시간. 앞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다양한 연주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부산 시민이 국악에 관심을 갖고 국악을 행복하게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토크오페라 **마술피리**

일 시 | 7월 4일-5일 목-금요일 오전 10:30,
오후 2:00(학교 단체관람)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초등 4학년 이상 관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5, 3113



국내 정상급 제작진이 선사하는 모차르트 최후의 걸작 오페라 '마술피리'.

모차르트가 사망하기 두 달 전에 완성한 최후의 역작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쾌한 해설과 오디오션을 통해 선발된 최고 수준의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라이브 오페라 분장체험까지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 지휘/백승현 • 연출, 해설/이의주
- 연주/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출연/김동혁, 김준태(타미노), 시영민, 유용준(파파게노), 박소영, 이수정(파미나), 강주희, 이예은(밤의 여왕), 손상혁(자라스트로), 이유빈, 박예은(파파게나)

지브리 영화음악 심포니 콘서트
with 오케스트라

일 시 | 7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4만원
문 의 | ㈜로엔그린뮤직엔컴퍼니 02-2038-8662



전 세계 수많은 매니아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감동을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선율로 감상할 수 있는 지브리 영화음악 심포니 콘서트 with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임동국이 지휘하고 로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서곡과 협주곡, 교향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독특한 편성의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지휘자 임동국은 2024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차세대 지휘자,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로 활동하며, 여러 무대를 통해 관객들을 지브리음악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 지휘/임동국 • 작곡가/강한희

2024 김창완밴드 전국투어 **개구쟁이**

일 시 | 7월 7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파이오니아(주) 1811-8202



올해로 데뷔 16주년을 맞은 한국 록 음악의 전설 김창완밴드 전국 투어. 록밴드 '산울림'의 만형이 자 한국 록의 시초로 꼽히는 김창완이 이끄는 김창완밴드는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록 그룹 산울림의 음악적 정통성을 이어오면서도 새로운 음악적 표현을 더한 음악으로 전 세대와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08년 EP 'The Happiest'를 발표하며 그동안의 음악을 공포한 김창완밴드는 이번 전국 투어공연에서는 '개구쟁이', '아니별씨', '너의 의미',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지'와 같은 산울림의 명곡은 물론 '모자와 스파게티', '중2' 등 김창완밴드의 곡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제17회 엠파이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13일 토요일 오후 6:3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관람연령 제한 없음)
문 의 | 엠파이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010-8633-4792



부산 리더스 플루트 오케스트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그동안 수준높은 음악과 기획으로 관객과 만나온 엠파이스(Music For Your Soul) 플루트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상임지휘자 조완수의 재치있는 해설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성악가 정하해가 특별출연, 클래식에서부터 팝, OST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들려준다.

- 지휘/조완수
- 음악감독/서민교
- 스페셜 게스트/정하해

에클레도 제2회 정기연주회 **쇼미더클래식**

일 시 | 7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만 5세 이상 관람, 문자예약)
문 의 | 에클레도 010-4891-6179



여름 밤을 수놓을 특별한 클래식 공연, 에클레도 '쇼미더클래식'.

에클레도는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멤버 전원이 교향악단을 비롯한 전문 예술악단에서 활동 중인 현역 연주자들로, 그동안 시민들이 클래식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에클레도의 연주와 더불어 유튜브 탕로그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권태영이 해설을 맡아 유쾌하면서도 감성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해설을 맡은 권태영이 바이올린 협연곡인 비에나프스키의 '폴로네이즈 제1번'을 들려주며, 퍼커서니스트 성형원이 네이 로사우로의 '마림바 협주곡 제1번 4악장', 테너 이태흠이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가곡 '첫사랑(이효근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2024 예술제 제35회 무용정기공연

일 시 | 7월 17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515-8106



예술영재 및 미래의 예술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 1986년 설립된 부산예술고등학교가 매년 마련하는 예술제 2024년 무대.

무용과 재학생들이 마련하는 이번 무용정기공연에서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장르별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한국무용/부채춤(김백봉류), 초립동(은방초류), 소고춤(권명화류), 역동(최현류), 한량무(조흥동류), 장단 그 신명

현대무용/competition

발레/코펠리아 중에서

- 한국무용/이은영(총연출 및 안무)
- 현대무용/송미란(안무)
- 발레/이화성(재안무)

제57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같은 속의 다름

일 시 | 7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예매시 30% 할인)
문 의 |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1996년 창단된 법인 예술 전문 교향악단으로, 그동안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한 사단법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윤상운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엔클래식 앙상블 대표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남중,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부감독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이 협연한다.

- 지휘/윤상운(동아대학교 교수)
- 비올라/김남중
- 클라리넷/백동훈

한국창작합창 21 2024년 제17회 작곡 발표회 **음악의 길로 나아가다**

일 시 | 7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총무 권태우 010-7600-4514



지난 2005년 합창음악의 연구와 창작, 발표를 통해 대중과 함께하는 창작합창 문화의 발전을 도모해온 한국창작합창 21의 작곡발표회. 지휘자 김강규가 이끄는 부산지휘자합창단(반주 윤지영)과 소프라노 정혜리, 바리톤 최모세, 가곡 반주 민유섬, 플루티스트 이동희가 함께한다.

프로그램

그대 그리운 별(김도은), 천년의 역사(이희진), 반달(이준영), 달빛(권태우), 주의 보좌앞에(임지연), 강우(홍윤경), The Red Sea(김은진), 내게로 향하여(진소영), 그대와의 가을(조혜선), 그(입룩), 귀하신 나의 주(정혜란), 감사의 노래(이옥영), 성터(최삼화)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독창회
연(緣) 그리움을 노래하다

일 시 | 7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박소연 010-5897-0388



아모로제성악연구회 대표이자 뉴욕메트로폴리탄오페라 HD극장상영작 전속 오페라 전문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수석입학, 졸업하고 도이, 제노바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파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아를 졸업한 박소연은 이태리 부살라국제콩쿠르, 디 스테파노 국제콩쿠르, 마리오 란차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그동안 오페라 주역 및 오라토리오 솔로리스트로 활동하며, 독창회 및 갈라콘서트,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박소연은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경성대학교, 인제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 반도네온/장종우 • 피아노/이현주

브니엘예술고등학교 2024 세빛제
제26회 무용예술제

일 시 | 7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문 의 | 브니엘예술고등학교 513-9710



예술 배움과 나눔을 통해 공명하는 삶을 완성해가는 브니엘예술고등학교가 매년 마련하는 아트 페스티벌 '세빛제'. 브니엘예술고등학교는 현재 무용부, 미술부, 음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한 차세대 예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세빛제'는 7월 16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실용음악)를 시작으로 17일 정기공연(뮤지컬), 그리고 2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무용예술제가 펼쳐진다.

한편, 미술전시회는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미로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I
박지은 피아노 독주회 **루드비히의 판타지**

일 시 | 7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박지은 010-5799-5890



탄탄한 연주와 진중한 성격의 피아니스트 박지은 독주회.

브니엘예술중·고등학교 수석입학 및 졸업,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우등 졸업하고 도독, 뮌헨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 최고연주자과정, 그리고 한국인 최초 현대음악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끊임없는 학구열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한 박지은은 일찍이 국내외 콩쿠르를 석권하며 피아니스트로서의 자질을 키워왔다.

지난해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가져오고 있는 박지은의 이번 무대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베토벤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중 제1번과 제13번, 제14번, 제23번을 들려준다.

2024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4th 프로젝트
다시 보다

일 시 | 7월 27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 장 료 | 초대(기간 내 관람예약 등록 시 적용)
문 의 |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010-8577-6429



유한한 삶과 시간의 뒤편에 대한 사유를 춤을 통해 그려낸 2023년 초연작 '회(回)'를 다시금 들여다보는 한국춤프로젝트 가마의 네 번째

프로젝트 '다시 보다'.

'다시 보다'는 찰나의 시간을 깊이 있게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한 작품으로, 안무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삶의 시작과 끝을 무대 위에 그림을 그리듯 그려낸다.

- 예술감독/강미리
- 안무 및 연출/한지은
- 출연/류현정, 박민지, 정서영, 김연주, 정혜지, 이소희, 김나영, 조아영, 안혜연, 배은채, 이지민, 한지은

Project : Choral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일 시 | 7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단장 오민성 010-4725-7714



클래식 음악애호가 및 부산, 경남지역의 여러 단체에서 꾸준히 활동 중인 비전공자들이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연주하기 위해 모인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Project: Choral'의 특별한 무대.

대규모 편성에 난이도가 높은 작품이라 연주할 기회가 없었던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이는 이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무대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특별한 무대로, 앞으로 부산, 경남지역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휘/박진 • 합창지휘/이성훈, 이기환
- 소프라노/한경성 • 메조소프라노/임은경
- 테너/황현한 • 바리톤/이태영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4 SUMMER FANTASY 퀸 심포니

일 시 | 7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부산시립합창단의 시원한 음악선물 '2024 Summer Fantasy'.

특히 올해는 영국을 대표하는 록밴드 퀸(Queen)의 주옥같은 히트곡을 엮어 완성한 톨가 카쉬프(Tolga Kashif)의 대편성 교향곡 '퀸 심포니'를 부산 초연으로 들려준다. 2002년 작곡된 '퀸 심포니'는 퀸을 대표하는 10여 곡의 명곡을 6악장의 관현악 형태로 녹여낸 작품으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까지 함께하는 대규모 작품이다.

- 지휘/임희준(부지휘자)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경성콘서트콰이어, 동아대학교 합창단
- 연주/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일 시 | 7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13일 토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정통 클래식 발레의 교과서라 불리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특히 유니버설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이번이 부산 초연무대로, 벌써부터 발레애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샤를 페로의 유명한 동화 속 이야기를 우아한 발레로 그려낸 고전발레의 대표작으로, 특히 플로레스탄 왕궁을 재현한 웅장한 무대 세트와 의상, 형식미의 절정을 보여주는 군무의 완벽한 대형과 주역의 화려한 그랑 파드되 등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하다.

연극 집을 떠나며

일 시 | 7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27일-28일 토-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17세 이상 관람)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2024년도 부산문화예솔지원사업 우수예술지원에 선정된 연극 '집을 떠나며'.

연출가 박장렬이 '블랙 리얼리즘'이라 명명한 이번 작품은 전쟁과 사랑에 대한 한 가족의 비극사를 그린 작품으로, 가족의 불행이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전쟁과 경제적 몰락이라는 국가적, 사회적 잘못에 기인한 문제임을 이야기한다. 이번 작품은 2015 일본 동경 타이니 아리스 페스티벌, 2016 광주 국제평화연극제, 2016 대한민국소극장열전에 초청됐으며, 2023 부산예술지원 매칭펀드 선정작으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 작, 연출/박장렬
- 출연/김상훈, 박승규, 황미애, 조정우, 차지예, 안유승

손태진&에녹 콘서트 in 부산

일 시 |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5만4천원, S석 13만2천원,
 A석 11만원
 문 의 | 공연마루 1588-0766



2022년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유닛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손태진, 에녹의 부산콘서트.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의 손태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베이스 바리톤으로, 2016년 '팬텀싱어' 우승팀인 '프로테 디 콰트로'의 멤버이자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에녹은 2007년 데뷔한 뮤지컬 배우로, 폭발적인 성량과 긴 호흡, 넓은 음역대로 사랑받으며 매년 뮤지컬 무대에 서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이킴&소란**

일 시 | 7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6만6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5%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감미로움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로이킴과 '소란스럽지 않은' 노래를 선사하는 4인조 록밴드 소란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로이킴은 2012년,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던 '슈퍼스타K4' 시즌에서 소위 '엄친아'로 이목을 끌며 우수한 후 탄탄한 실력을 갖춘 베테랑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수준 높은 연주를 기반으로 팝과 모던록을 추구하는 4인조 밴드 소란은 2010년 데뷔 이래 지금까지 연애의 세밀한 감정선과 온기 넘치는 위로를 음악에 주로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감상적인 발라드부터 유쾌한 팝, 록음악까지 달콤하게 귀를 녹여줄 두 아티스트의 설레이는 만남이 펼쳐진다.

박미정 초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7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D'art Hall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연주자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미정 초청 리사이틀.

선화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도미, 월넛힐 예술고등학교를 거쳐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 및 석사, 보스턴대학교에서 피아노 연주 박사학위(DMA)를 취득한 박미정은 일찍이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 받았다. 박미정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독주와 피아노 듀오, 실내악 연주 등 다양한 모습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폭넓은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안단테와 변주곡 바단조 작품 17:6 '작은 디베르티멘토'
 라흐마니노프/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42
 브람스/6개의 소품 작품 118 등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일 시 | 7월 3일(수), 17일(수)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정영홀
 입 장 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3일 구각노리 '잘 살아 보세'



한국의 전통 민요와 국악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퓨전 국악 밴드 '구각노리'의 무대. '국악으로 놀아보세'라는 뜻을 지닌 구각노리는 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악의 즐거움을 대중들에게 선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노세' '래지나 칭칭' 등의 곡을 통해서 삶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옛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구각노리의 노래로 재해석한다. 특히 관객들과 반복되는 후렴구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진지하게, 한편으로 가볍고 유쾌하게 관객들

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노래한다.

- 기타&보컬/피트정
- 소리/정가인 • 풍물드림/원익준

17일 멜랑제앙상블 '여름연가'



실력 있는 성악가와 기악 연주자들이 어우러져 유기적인 편성과 조화로운 앙상블로 연주하는 멜랑제앙상블의 무대.

'멜랑제(Melanger)'는 프랑스로 '섞다'라는 의미로, 2021년 창단 후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멜랑제앙상블은 19세기 낭만주의의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레퍼토리로 아름다운 성악곡과 환상적이고 화려한 앙상블곡으로 관객들에게 풍부한 감수성과 감동을 전한다.

- 클라리넷/백동훈 • 첼로/이동열
- 메조소프라노/강희영 • 피아노/서혜리
- 바이올린/백재진 • 해설/김윤선

7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마다 펼치는 상설무대 '금정수요음악회' 7월 무대.

3일(제857회) 정은혜 피아노 독주회 'Lisztomania'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프란츠 리스트 국제콩쿠르에서 '그녀가 진짜 리스트인(Lisztian)이다'라는 찬사와 함께 우승을 거머쥐며 국제적인 입지를 다진 피아니스트 정은혜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리스트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집 작품 141', '피아노 소나타 나단조 작품 178'을 들려준다.

10일(제858회) 한국 가곡의 밤 '사계'

부산지역 성악가들이 꾸미는 한국가곡의 밤. '사계'라는 주제로 각 계절에 걸맞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강건너 봄이 오듯, 새타령, 뱃노래, 고품의상, 참 맑은 물살, 청산에 살리라, 가고파, 첫사랑, 별 등 수곡

- 소프라노/이지현, 이수정, 박소영, 박나래

- 테너/안학범, 문한솔
- 바리톤/서영민 • 해금/박재하
- 피아노/황유진, 최동욱

17일(제859회) 라틴으로 북적북적



부산, 경남을 무대로 활동하는 타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V.I.P 타악앙상블의 무대. '타악기의 변화(variation in percussion)'라는 뜻을 지닌 V.I.P 타악앙상블은 타악기로 새로운 것, 변화된 것과 무한한 잠재력을 알리고 싶다는 뜻을 모아 창단한 단체로, 그동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클래식부터 팝, 재즈, 퓨전,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며 생소한 악기들을 소개하는 동시에 타악기의 매력을 알려오고 있다.

- 지휘/조용운 • 사회/김세연

- 타악기/김지연, 조우리, 한요정, 최준서, 서지형, 성형원, 이우재, 소경민, 최은서, 이나현, 유현승, 윤이송
- 피아노/박윤정

24일(제860회) 금상첨화(錦上添花)



우리음악과 대중의 접목을 위해 노력하고 연주하는 젊은 국악재주꾼들이 모인 단체로, 일상 속 친근한 국악을 만들기 위해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적 탐구를 펼치고 있는 국악그룹

오름달의 무대. 오름달은 전통음악을 이어가는 동시에 젊고 힘찬 국악이라는 컨셉으로 카멜레온 같은 국악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팀명인 '오름달'은 어두운 곳을 환히 비추는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처럼 좋은 음악으로 세상을 환히 비추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 피리, 태평소, 생황/이윤희
- 소금, 대금/오재은 • 가야금/허민영

7월 스페이스음 음악회

일 시 | 7월 4일(목), 12일(금), 19일(금),
26일(금) 오후 7:30 스페이스음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음 557-3369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음의 7월 무대.

4일(제548회) 바이올린 & 기타 듀오콘서트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과 바이올리니스트 김예지의 듀오 무대.

고충진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제2회 대전일보사 주최 전국 클래식기타 콩쿠르 대상을 수상했으며, 김예지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석사 및 연주자과정을 전액 장학생으로 이수하고 Akron Symphony 1st violin 4th chair, Canton Symphony 2nd violin 부수석으로 활동한 바 있다.

12일(제549회) 임채희 트리오의 Ballad & Swing

보컬 임채희, 기타리스트 준 스미스, 베이스스트 박진교로 구성된 임채희 트리오의 무대.

19일(제550회) Mezcla 메즈클라의 Vamos Tango



2024 부산원문스페스티벌 무대로, 메즈클라의 탱고음악을 만날 수 있는 'Vamos Tango'.

정열을 노래하는 메즈클라는 클래식과 재즈 전공자들이 만나 열정적인 탱고음악을 들려주는 5인조 오리엔탈 탱고음악팀이다.

- 바리톤/김경한 • 색소폰/이기봉
- 기타/고정현 • 피아노/윤혜빈
- 베이스/한도경

26일(제551회) La Stellar Concert



소프라노 박은경, 이예은, 테너 하태선, 바리톤 최모세의 La Stellar Concert.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바리톤 최모세 귀국 독창회

일 시 | 7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최모세 010-7582-8136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음악적 감성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바리톤 최모세 독창회.

동아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이, 파르마 'Arriigo Boito'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밀

라노 Civica di Musica Abbado 보컬코치 전공 Accademia Donizetti 뮤지컬, 합창지휘 전공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최모세는 2019년 이탈리아 파르마 왕립극장에서 베르디 오페라 '가면 무도회'로 정식 데뷔한 후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며 해외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헨델, 모차르트, 도니제티, 벨리니, 바그너, 베르디의 주요 오페라 아리아와 토스티, 차이콥스키의 가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최승희 • 해설/김윤선

제10회 을숙도 오페라축제

일 시 | 7월 5일(금)-27일(토) 금요일 7:30,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을숙도문화회관이 오페라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주최하고 있는 제10회 을숙도 오페라축제.

올해로 열둘을 맞은 이번 무대에서는 개막작인 오페라 '마술피리'를 시작으로 총 네 작품을 선보인다.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5:00

부경필하모니오케스트라 '마술피리'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유통사업에 선정된 부경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마술피리'.

천재작곡가 모차르트의 대표작으로, 밤과 낮으로 상징되는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적

대립속에서 두 남녀가 갖가지 시험을 통과하며 결국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박한 가곡, 익살스러운 민요, 진지한 종교음악, 화려한 이탈리아 오페라 스타일이 고루 섞여있어 오페

라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에게도 쉽게 다가간다.

- 단장/공영식 • 예술감독/이승우
- 연출/기민정 • 지휘/김병미

13일(토) 오후 5:00

부산예술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최고의 실력을 갖춘 부산 예술가들로 구성된 부산예술오페라단이 선보이는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단장/박재하
- 예술총감독/최판수
- 지휘/오창록
- 연출/이병용 • 합창지휘/김시하
- 연주/멜리카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 합창/부산예술오페라 콰이어, 사상구 여성합창단, 그린나래 오페라

19일(금) 오후 7:30, 20일(토) 오후 5:00

드림문화오페라단 '팔리아치'



광대들 사이에서 일어난 처정을 2막 구조로 구성한 레온카발로의 사실주의 비극 오페라 '팔리아치'. 제목인 팔리아치는 '광대들'이라는 뜻.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테

너 김지호, 소프라노 오예은을 비롯해 부산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의 화려한 연기를 감상할 수 있다.

- 예술총감독/유형광 • 지휘/박지운
- 연출/장진규 • 음악코치/조은지, 김현정

27일(토) 오후 5:00

오페라단 나눔 '세비아의 이발사'



부산의 대표 오페라단 '나눔 오페라단'이 선보이는 로시니 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2018년 창단한 오페라단 나눔은 함께하는 오페라를 지향하는 오페라단으로 지역의 음악인들과 함께 수준높은 작품을 제작하는 한편, 젊은 성악가들을 발굴

육성하고 문화 소외 계층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오페라 부파의 최대 걸작품으로 평가받는 '세비아의 이발사'는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황금기를 연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작가 특유의 풍자적 표현이 곳곳에 숨어 있다.

피가로에 바리톤 이승민, 로지나에 소프라노 왕기현, 알마비바 백작에 테너 장지현이 출연한다.

- 예술감독/이철성 • 지휘/윤상운
- 연출/김성경 • 음악코치/김보혜, 최승희

게네랄파우제 7월 공연

일 시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6일은 오후 8:00) **게네랄파우제**
입 장 료 전석 2만원
문 의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7월 무대.

3일(수) 오후 8:00 NOW JAZZ



바이올리니스트 조해운과 재즈 피아노 민주신의 만남. 마치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각국의 특색있는 음악을, 그들의 편곡과 즉흥이 어우러진 연주를 수준급 세션들과 함께 들려준다.

- 바이올린/조해운 • 아노/민주신
- 기타/김경모 • 콘트라베이스/황대웅
- 드럼/허여정

5일(금) 오후 8:00 New Standards



우리에게 익숙한 재즈 스탠다드를 강해진 퀸텟만의 새로운 편곡과 사운드로 들려주는 무대로, 재즈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장르에 대한 시도로 새로운 스탠다드(New Standard)를 만날 수 있다.

- 보컬/정세미 • 색소폰/손태호
- 피아노/강혜인 • 베이스/심규환
- 드럼/홍영호

6일(토) 오후 8:00 이달현 재즈트리오



볼꽃 카리스마 기타리스트 이달현과 시간을 연주하는 부산의 불세출 드러머 윤혁성, 그리고 화려하고 현란한 테크닉이 돋보이는 베이스리스트 박지원, 스페셜 게스트 재즈 피아니스트 조수임과 함께 하는 재즈음악의 향연.

12일(금) 오후 8:00 도시의 밤, 영화 음악을 수놓다 '포레 누와르의 영화 음악 이야기'



피아니스트 문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상희, 첼리스트 신승엽, 베이스 김진우가 들려주는 영화음악 이야기.

섬세하고 아련한 피아노 트리오와 베이스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OST를 들려준다.

13일(토) 오후 7:00 Jazz standard

피아니스트 정현지를 중심으로 베이스리스트 김대경, 드러머 이승환으로 구성된 정현지트리오가 재즈에 기반한 다양한 장르를 그들만의 사운드로 들

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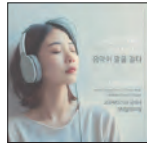
18일(목) 오후 8:00 Gershwin's Masterpieces



세계적인 작곡가 조지 거슈윈의 명곡을 비롯한 다양한 스탠다드 곡을 민수연 트리오의 연주로 들려준다.

- 색소폰/정준 • 피아노/민수연
- 베이스/진익진

19일(금) 오후 8:00 Jazz Story Concert '음악이 말을 걸다'



허쉬밴드의 2024 재즈스토리 콘서트 '자연과 사람들' 시리즈 7월 무대.

'허쉬밴드는 드러머 허여정을 리더로, 보컬 다희·이동현, 기타리스트 정준교, 피아니스트 오노린, 베이스리스트 황대웅, 아코디나, 스토리의 심리학자 김선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20일(토) 오후 7:00 Hygge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밸런스로 따스하고 감미로운 재즈음악을 들려줄 최은아 트리오의 무대. 연주명인 'Hygge'는 '편안한, 따스한, 아늑함'을 뜻하는 덴마크어이다.

- 보컬/최은아 • 피아노/장세연
- 트럼펫/안우성

25일(목) 오후 8:00 월간 민주신 '베이스스트 박주민의 이야기'



재즈 뮤지션을 초청, 음악인들의 삶과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연주와 함께 생생하게 전하는 토크콘서트로, 7월에는 베이스리스트 박주민이 함께 한다.

26일(금) 오후 8:00 JAZZ PLAYLIST



무더운 여름밤, 듣기 좋은 재즈를 들려주는 박소현 Quartet의 무대로 재즈 입문자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연주곡들로 관객과 만난다.

- 피아노/박소현 • 보컬/남정민
- 드럼/고명석 • 베이스/권순안

27일(토) 오후 7:00 When You Wish Upon A Star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속 음악들을 도담양상블의 라이브 연주를 통해 다시 만나는 특별한 무대.

- 작, 편곡/강현민
- 피아노/손안나 • 첼로/정혜주
- 플루트/조다운 • 클라리넷/강철주

벨리시미성악연구회 제22회 정기연주회 Turn the page

일 시 7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전석 2만원(단체 10% 할인)
문 의 벨리시미성악연구회 010-8277-4746, 010-9234-0448



2005년 창단 후 따뜻한 테마와 주제가 있는 무대로 관객과 만나온 벨리시미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지난 20여년간 음악에 담은 열정과 삶의 희노애락을 회상하며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꿈꾸는 무대로, SI 영상과 함께하는 음악극으로 꾸며진다. 벨리시미(Bellissimi)는 이태리어로 '멋있는', '아름다운'이라는 뜻.

- 소프라노/이은미, 이윤순, 이지영, 장은영, 정혜리, 김기원, 백성희, 이은희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성미진
- 피아노/금찬이 • 바이올린/김가람
- 첼로/정서은

더 솔로이스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Brahms, Beethoven in Busan

일 시 7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사)더 솔로이스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10-8277-9765



부산지역 출신의 연주자들이 모여 수준높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창단된 더 솔로이스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Brahms, Beethoven in Busan'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역의 유명 작곡가인 정수란의 창작곡 'Response for Orchestra'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첼리스트 조형준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브람스 '이중협주곡'과 부산시민을 위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들려준다.

- 지휘/서진(상임지휘자, 계명대학교 교수)

제498회 가람초청음악회
Cinema Music for Duo

일 시 | 7월 14일 일요일 오후 4:00
가람아트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가람아트홀 010-2113-8604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경태와 반도네온 연주자 김종완으로 이루어진 듀오그룹 '듀오 포레(Duo Forêt)'의 무대.

김경태는 한국기타협회 콩쿠르 성인부 1위, 대구국제기타페스티벌 앙상블 2위, 통영국제음악제프린지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했으며,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상임지휘자, 폴리포니기타듀오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김종완은 2020 한국음악상 젊은 음악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친친탱고 대표, 웨스트섬심포니오케스트라 전속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 OST를 클래식 기타와 반도네온의 앙상블로 들려준다.

LAETUS DUO 연주회 **Sweet Suite**

일 시 | 7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LAETUS DUO 010-9662-2019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과 피아니스트 김원민으로 구성된 LAETUS DUO의 무대.

김주영은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 학사, 줄리어드 음대 석사, 맨하탄 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

하고 현재 창원대학교 겸임교수,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원민은 스위스 베른 음대와 미국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중국 쑤저우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 연주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LAETUS DUO는 그동안 부산 현대음악의 새로운 면모와 음악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듀오의 다채로운 매력을 청중들에게 부각시켜왔다.

'Sweet Suite'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의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엘 미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엘 미소 오케스트라 010-6548-9542



부산 최초의 지적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재능과 열정을 지닌 단원들이 모여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엘 미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단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담긴 다양한 곡들의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한다.

H-클래식 **피콜로 오페라 페스티벌**

일 시 | 7월 19일(금)-8월 9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2층) 1만원
(초중고생 3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수준높은 오페라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한 '피콜로 오페라 페스티벌'.

7월 19일(금) 부산예술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위축되어 있던 클래식 공연 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부산 예술가들로 구성된 부산예술오페라단이 선사하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화류계 여성인 여주인공 비올레타와 평범한 귀족 청년 알프레도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된 오페라이기도 하다.

- 연출/이병용 • 지휘/오창록
- 음악코치, 반주/조아라
- 해설/김민성
- 소프라노/정혜리, 김정상

- 메조소프라노/조은
- 테너/박재화, 이광진 바리톤/최관수
- 베이스 바리톤/김승현
- 베이스/이기백, 김영수, 이신혁

7월 26일(금) 영아츠 컴퍼니 '물의 아이'



힘센 장사 오동미와 인어의 사랑을 그린 창작 가족오페라 '물의 아이'.

- 프로듀서/김태영
- 작곡/한대섭

- 작, 연출/장희원
- 소프라노/최예은, 이선아
- 테너/김지훈 • 바리톤/류동휘

8월 2일(금) 프로젝트 오리지날 '피가로의 결혼'



풍자의 미학과 유쾌한 희극적 요소가 결합된 18세기의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이번바 '보마르세 3부작'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보마르세의 희곡은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이발사 피가로와 바람둥이 알마비바 백작이 펼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부 '세비야의 이발사', 2부 '피가로의 결혼', 그리고

3부 '죄 많은 어머니'까지 전체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1부 '세비야의 이발사'는 파이지엘로, 로시니, 존 코릴리아노 등이 오페라로 만들었고, 모차르트는 그 중 1부의 속편 격인 2부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했다.

- 연출/정승화 • 음악코치/최승희
- 피아노/민종호 • 해설/배우 선승일
- 소프라노/이진영, 정혜리, 김아름
- 테너/박호민 • 바리톤/정승화, 한정현

8월 9일(금) 아트내상스 '그남자 그여자 & 신기한 네일샵'



몬티의 'The Telephone'과 세이무어 바랍의 'A Game Of Chance'를 각각 원작으로 한 '그남자 그여자', '신기한 네일샵'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

- 연출/김대경 • 지휘/손성준
- 총괄기획/박순기
- 소프라노/김민혜, 박현진, 정혜리
- 메조소프라노 : 이지영
- 바리톤/강경원 • 베이스/박순기
- 연주/경상필요오케스트라 15인조

기타공연장

제8회 테너 양승엽 독창회
한국 가곡의 밤 시즌3

일 시 | 7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양승엽 010-7767-4390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새롭게 선보이는 창작 가곡을 테너 양승엽의 환상적인 목소리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정서와 가장 어울리는 한국 가곡을 대중에게 더 많이 알리고, 새로운 창작 가곡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관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도 곁들인다.

프로그램

무곡, 산아, 별, 고독, 연, 그대 창 밖에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그대 어디쯤 보고 있을까, 서툰 고백

- 해설/정두환
- 피아노/김경미 • 첼로/조명환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신인 아티스트 협연 콘서트

일 시 | 7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010-2202-0845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 손명균이 이끄는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차세대 연주자들을 위해 마련한 신인 아티스트 협연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오디션 및 대회 수상을 통해 선발된 부산지역 신인음악인 8명의 협연무대가 펼쳐진다.

- 지휘/손명균
- 피아노/김하은(금병초 3학년), 강경민(남명초 6학년), 권민준(감계중 1학년), 남유진(한의사), 제예승(부산예중 2학년), 채도희(부산여중 2학년), 김지후(감계중 3학년)
- 바이올린/이예다(포항유강초 4학년)

DANIELS CLASSIC 역동

일 시 | 7월 20일 토요일 오후 6:00
광안대니얼스
문 의 | 대니얼스 010-9227-7267
(인스타그램 DANIELS_TRIBE)

광안동에 위치한 카페 대니얼스가 마련하는 한 여름밤 클래식 향연 'DANIELS CLASSIC'. 한국작곡가회, 부산작곡가회 감사, 창작합창21 이사이자 동의과학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로 있는 윤소정이 진행하는 렉처콘서트로, (사)부산창작오페라단 사무국장 및 오페라 코치, 작곡그룹 Anti Stimmung 연주이사이자 Concert Pianist, 동신교회 반주자로 있는 피아니스트 최민경, B&F 앙상블 단원이자 베를린플루트스튜디오 원장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박수철, 오페라 주역이자 솔리스트, 협연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는 소프라노 왕기현이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영도에서 떠나는 렉처콘서트 시리즈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과 함께하는
섬머 라틴 콘서트

일 시 | 7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과 함께 부산의 유일무이한 비주얼 라틴밴드 겐츠가 선사하는 섬머 라틴 콘서트. 전설적인 미국의 색소포니스트 스탠 겐츠(Stan Getz)의 이름에서 가져온 겐츠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담긴 쿠바 전통 음악을 연주하며, 아프리카계 쿠바인들의 고전적 리듬과 재즈의 조화, 그리고 즉흥 연주의 기교를 혼합한 아프로쿠반 음악이 가진 매력을 들려주고 있다.

- 보컬/김소현, 배수진
- 드럼/알라인 • 퍼커션/이영훈
- 베이스/박주민 • 피아노/정시운
- 신디&봉고/백원우 • 색소폰/하재현

울속도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한여름밤 Ice Coffee 콘서트

일 시 | 7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야외특설무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울속도문화회관이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에게 보내는 시원한 음악선물 '한여름밤 Ice Coffee 콘서트'.

울속도문화회관의 아름다운 야외무대에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수 박완규, 소프라노 윤선기, 테너 이우정, 그리고 부산 최고의 연주력을 자랑하는 오케스트라 Ari-클래식이 출연,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부활의 5대, 11대 싱어로 활동한 바 있는 박완규는 특출한 가창력과 파워풀한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그의 대표곡인 'Lonely Night', '천년의 사랑' 등을 들려준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는 아이스커피와 아이스쥬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제2회 위더스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27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교운홀
문 의 | 위더스 클라리넷 앙상블
010-3585-1612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클라리넷을 사랑하고,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루고 함께 성장해나가는 위더스 클라리넷 앙상블의 무대.

2023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따뜻하고 포근한 음색부터 화려하고 매력적인 소리까지, 클라리넷 악기군의 다양성을 통해 관객들에게 풍성한 음악적 경험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는 단원들의 성장과 음악적 역량을 고스란히 선보이는 무대로, 클라리넷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다.

- 지휘/장일훈 • 트레이너/박은정
- 연주/권미정, 김태영, 노혜정, 이정민, 이완, 유경수, 진세정, 차정미, 최우경, 황남희

2024 부산문화재단 우수예술지원사업선정 월드국악프로젝트 판

일 시 | 7월 28일 일요일 오후 6:00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010-8012-2613

2011년 창단 후 양악과 국악, 두 음악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온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의 무대. 이번 무대는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가 지난 10년간 연구한 '월드국악프로젝트 판-East'와 '월드국악프로젝트 판-West'를 'Universe'로 발전시킨 무대로, 국악기에 외국음악의 선법과 주법을 적용하여 이국적인 느낌을 표현, 국악기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월드뮤직으로서의 국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이다.

- 연출/김영준(대표, 사운드팩토리판 예술감독)
- 예술감독/진성은 • 작곡, 피아노/김영준
- 핸드편, 전자음악/진성은
- 가야금/박현정, 박소현 • 대금, 소금/황미정
- 피리, 태평소/임진희 • 드럼/김현수
- 베이스/고보성

여름방학과 함께하는 클래식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일 시 | 7월 28일 일요일 오후 3:00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010-5029-5807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매월 다양한 테마와 더불어 지브리 음악을 소개해온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7월 무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히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어연히'(어디서든 연주가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대표이자 계명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첼리스트 이명로와 그라스네 앙상블 단장이자 '첼리스트의 서재' 대표로 있는 피아니스트 박민희, '어연히' 부대표로 있는 플루티스트 신혜원, 해운대 인기 버스커 '꿈꾸는 요리사'로 유명한 아코디언리스트 심성훈,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 첼로 단원 이석민이 우리 귀에 친숙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와 영화음악 수록곡,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해운대문화회관 e-끌림 On Stage Concert 친친탱고

일 시 | 7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7월 '문화가 있는 날' 무대로 마련하는 e-끌림 On Stage Concert. e-끌림 On Stage Concert는 관객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관람, 더욱더 생생하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7월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탱고 밴드 '친친탱고'가 무대에 오른다.

- 프로그램**
 피아졸라/천사의 죽음, 악마의 로망스
 김종완/그때의 나
 K. Yoko · 김종완/항해 시리즈 등 수록
 • 반도네논/김종완 • 피아노/이안나
 • 바이올린/강소연 • 사회/김성민

2024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7월 음악으로 영상에 맞춥음을 입히다: 스코어링의 미학

일 시 | 7월 31일 수요일 오전 11:00
문 의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780-6060



한국영화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화음악감독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의전당 11시 영화음악콘서트. 올해 영화음악콘서트에서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로 한국영화음악을 발전시킨 한국영화음악의 거장 조성우가 호스트로 참여하여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관객들을 만난다. 7월은 조성우와 함께하는 영화음악 마스터 클래스로, 영화음악의 A부터 Z까지 배울 수 있으며, 영화 '천문', '덕혜옹주', '스위치', '약속'의 메인테마를 코리아 필름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연극 편의점 진상들

일 시 | 3월 14일(목)-7월 28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1588-2757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 겪었을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극 중 주인공이 대신 속 시원하게 맞아받아치며 웃음과 공감을 주는 '편의점 진상들'. 주인공 상식은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여 가족들 눈치보기 바쁜 취업 준비생이다. 담뱃값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편의점 알바, 바쁘고 정신 없는 편의점에서 고군분투하던 중 상식의 눈에 들어온 로또 1등 중이. 로또 인생 한방을 꿈꾸는 상식 앞에 멘탈 탈탈 털리게 만드는 진상들이 나타나며 K손님과 맞선 로또 사수 대작전이 펼쳐지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격공할 수 있는 인생 실전 이야기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연극 오 나의 귀신님

일 시 | 3월 28일(목)-7월 1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1588-2757



본격 빙의 로맨스 연극 '오 나의 귀신님'. 로맨스 작가를 꿈꾸는 연애 고자 재림 앞에 나타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그녀 한별, 달콤하기도 살벌하기도 한 그녀 몸엔 알고 보니 귀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여자와 다른 이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남자, 그리고 이승을 떠돌며 버킷리스트를 채우고 있는 귀신, 한 지붕 두 사람과 한 귀신이 펼치는 버라이어티한 로맨틱 코미디가 펼쳐진다.

기타공연장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일 시 | 5월 1일(수)-Open run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월-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 장 료 | 전석 6만원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세대불문,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휴먼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초연된 후 책을 본 관객 뿐 아니라 연극을 본 관객이 책을 구매하는 역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스타디셀러 연극으로, 이번에 센텀 KNN타워에 위치한 KNN시어터에서 장기상연에 들어간다. 노숙인이었던 주인공 독도가 율예이즈 편의점 사장 염여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가는 과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프로듀서 황기현, 연출 홍현우, 음악감독 김은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탄생한 웰메이드 뮤지컬마로, 감각적인 선율과 극의 정서를 반영한 가사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전한다.

연극 **절대영도**

일 시 | 7월 6일-7일 토-일요일 오후 4:00,
공간소극장
입 장 료 | 자유석 3만원
(15세이상 관람, 학생 5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일본을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연출가 가네시타 다쓰오가 교사의 체 별로 여고생이 숨진 실재 사건을 토대로 쓴 문 제작 '절대영도'. 교도소 면회실과 집의 폐쇄된 공간을 오가는 세 인물의 기형적 모습을 밀도 있게 그려낸 작품으로, 지난 2020년 초연 당시 치밀한 연출력으로 관객과 욕망을 탐구한 연출가 오재균이 다시 연출을 맡아 한층 더 깊어진 통찰력을 보여준다. 작품명인 '절대영도'는 물리학에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최저 온도인 섭씨 영하 273.15도로, 극저온에 도달한 생명체는 얼어붙은 듯 완전 정지하게 된다.
• 작/가네시타 다쓰오 • 연출/오재균
• 출연/윤상호, 최지은, 서준호

판놀음 **새 허생 이야기**

일 시 | 6월 27일(목)-7월 20일(토)
매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6:00(일-수요일 공연없음)
호로인디아트홀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12세 이상 관람, 10인 이상
단체 20% 할인)
문 의 | 극단새벽 245-5919



창단 40주년을 맞아 극단새벽이 선보이는 레퍼토리 공연, 판놀음 '새 허생 이야기'. 1987년 '방자와 마당쇠'라는 이름으로 초연된 후 1995년과 1996년 지금의 제목으로 레퍼토리화된 '새 허생 이야기'는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돈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독점한 정보로 돈을 또 긁어모으는 이윤 중심의 세상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담고 있다. 2024년 '새 허생 이야기'에는 1996년 당시, 새내기로 참여했던 변현주(방자 역), 2007년 이현식(허생 역) 배우가 지금의 세내기 배우인 김기백, 김다에 단원과 함께 세대를 잇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작, 연출/이성민

로맨틱 코미디 **프로포즈**

일 시 | 7월 12(금)-14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프로젝트그림 배우다 723-0568



2024년 프로젝트그림 배우다 기획전으로, 체 흡 원작 '청혼'을 경상도 하동의 감나무집 배경으로 옮겨와 이 시대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는 사랑이야기로 재구성한 로맨틱 코미디극 '프로포즈'. 전라도 청년 영우는 이웃에 오렌기간 영정을 품은 한 여인이 있다. 경상도 이장님의 딸 현정이다. 소심한 그는 감감하게 단장을 하고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러 간다. 결심과 다르게 이야기는 계속 산으로 가고, 과연 영우는 프로포즈에 성공할 수 있을까?
• 원작/안톤 체흡
• 대본 구성 및 연출/우여진(초연), 박정우
• 출연/김홍식, 김영우, 이현정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

일 시 | 7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5일 금요일
오후 2:30, 7:30, 6일(토)-21일(일)
매주 주말 오후 2:00, 7:00(7일 오후
3:00, 평일 공연 없음) **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석 16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관람 가능)
문 의 | 클럽서비스(주) 1577-3363



토니아워즈 6관왕, 그래미워즈 최우수 뮤지컬 앨범상 수상 등 브로드웨이를 휩쓴 최고의 히트작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 2015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초연된 후 영국 웨스트엔드 거처 올해 아시아 최초로 처음 무대에 오르는 '디어 에반 헨슨'은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소심한 소년 에반 헨슨의 이야기를 통해 가정, 학교, 회사 등 사회와 집단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심한 외톨이 '에반 헨슨' 역은 김성규, 박강현, 식규형이 나란히 캐스팅됐다.

공간소극장 개관 20주년 기념 세 번째 공연
연극 **우리 집 뜨락에는**

일 시 | 7월 12일(금)-20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일요일 공연
없음) **공간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12세 이상 관람, 7/5일
까지 예매시 30%, 학생 5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부조리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는 연극 '우리 집 뜨락에는'. 해변을 낀 어느 도시의 산기슭. 그 곳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겁쟁이 개와 고양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는 고양이이를 쫓아내려 하고, 고양이는 개와 함께 지내려 한다. 서로의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개와 고양이,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공간을 허락받고자 하는 자와 허락하지 않으려는 자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한 인물이 다른 한 인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극복하기 어려운 부조리한 현실 등이 무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 작, 연출/전상배 • 출연/최현정, 정이형

기타공연장

제6회 부산발레페스티벌 Dance Wave

일 시 | 7월 5일-7일 금-일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Special Gala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취미 발레인부터 국내 최정상급 프로 발레단과 발레 스타까지, 발레인들을 위한 화려한 축제 '제6회 부산발레페스티벌'. 첫 날인 5일에는 청년 예술인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Dance

Wave'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팀의 경연으로 펼쳐진다.

6일에는 국내외 정상급 프로 발레단과 발레 스타들의 화려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Special Gala'에 이어 7일에는 미래 무용계를 이끌어갈 발레 꿈나무들의 무대 'Youth Ballet', 발레를 사랑하는 취미발레인들의 축제의 장 'Shall We Ballet'가 펼쳐진다.

해설이 있는 발레 해적 Le Corsaire

일 시 | 7월 7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BCBC부산시티발레단
010-4552-9605, 010-2920-0503



신라대학교 박헌주 교수가 이끄는 부산시티발레단이 부산시민을 위해 마련한 해설이 있는 발레 '해적'.

2024년 부산문화재단 우수예술지원 선정작으로, 부산시티발레단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반인을 위한 부산시티주니어무용단(BCJD), 부산시티시니어무용단(BCSD)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타 지역에서도 실연되기 어려운 '해적' 전막공연을 해설과 함께 선보인다.

총 3막으로 구성된 '해적'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의 시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지젤의 작곡가 아돌프 야당, 조셉 마질러 안무로 초연된 후 지금까지 여러 버전으로 제작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24 가족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일 시 | 7월 14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BCBC부산시티발레단
010-4552-9605, 91902920-0503



부산시티발레단이 마련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지난 2022년 APCE나루공원에 이어 지난해 금정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 열린 부산시티발레단의 '한여름밤의 페

스티벌'은 올해는 야외공연장이 아닌 실내공연장에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Let's Dance Together(안무/박지은)
The sleeping beauty 중 3막 결혼식 그랑 파드되(안무 및 재구성/강세영)
인형요정(안무 및 재구성/서정애)
잠자는 숲속의 미녀(안무 및 재구성/서정애)등

2024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일 시 | 7월 1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워크숍 문의 626-9486)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김옥련발레단의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발레단인 김옥련발레단이 지난 2014년 첫선을 보인 후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

아온 '거인의 정원'은 영미문학의 대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명작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발레뿐만 아니라 극적 효과를 위해 배우가 출연하여 몸짓과 대사를 사용하고, 타 장르와의 융합과 협업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특히 '거인의 정원'은 매년 수정, 보완으로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여가며 10년째 공연중인 교육용-가족용 춤 프로젝트,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거인이 담장을 허물고 맑고 순수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원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사

랑, 인간성 회복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고 느끼게 한다. 공연 전날인 7월 12일에는 '공연이 나타났어요' 공연 연계 워크숍이 진행된다.

지난 1995년 창단된 후 창작발레 활성화와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온 김옥련발레단은 특히 잘 알려진 문예나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한 창작발레를 지향하는 한편, 춤의 저변확대를 위한 어린이 발레를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특히 창작발레 '부산시민 장기러', '운현궁의 봄', 발레컬(발레+뮤지컬) '운수 좋은 날', '유희신', '해운대 연가', 총체극 '분홍신 그 남자' 등 수많은 발레 공연을 선보이며 예술의 일상화를 선도해오고 있다.

- 연출, 대본/유상홍
- 안무, 예술감독/김옥련
- 작곡, 음악감독/전현미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연극 추남, 미녀

일 시 | 7월 31일 수요일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무료(15세 이상 관람, 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서울 예술의전당 우수공연을 영상으로 만나는 'SAC on Screen', 연극 '추남, 미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벨기에 소설가 아멜리 노통브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추남, 미녀'

는 17세기 프랑스의 동화작가 샤를 페로의 '도가머리 리케'를 원작으로 재창작된 작품으로, 도가머리(보통 머리털이 부스스하게 일어선 것을 놀리는 말) 모양을 한 추남 왕자와 뛰어난 외모만큼 지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고민인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극 '추남, 미녀'는 지난 2019년 초연무대를 가진 후 지난해 5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됐다.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2024 서문탁 콘서트 In Busan

일 시 | 7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1층 R석 3만원, 2층 S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대중들에게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락크 서문탁 초청 콘서트.

대한민국의 여성 로커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허스키하고 중성적인 목소리가 트레이드 마크인 서문탁은 1999년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으로 데뷔, '나는 가수다2', '불후의 명곡 2'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문탁은 현재 KBS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하고 있으며 한국가온예술종합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보컬전공 겸임교수로 있다.

프로그램
비상, And I'm telling you, 불새, 스물다섯 스물하나, 형, 천년의 사랑, 불티, 할레루야, 사랑 결코 시들지않는, 돌덩이, 사미인곡 등 수곡

프로그램

프로그램
비상, And I'm telling you, 불새, 스물다섯 스물하나, 형, 천년의 사랑, 불티, 할레루야, 사랑 결코 시들지않는, 돌덩이, 사미인곡 등 수곡

7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페라바움이 정열의 계절 7월을 맞아 준비한 클래식 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후기낭만주의와 현대 관현악을, 금요일에는 러시아 오페라 특집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사전 해설과 감상 후 참여자의 자유토론, 감상소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오페라(러시아 특집)/무소르스키 '보리스 고두노프'(5일~6일), 쇼스타코비치 '므첸스크의 맥베스부인'(12일~13일), 린스키 코르사코프 '사드코'(19일~20일), 차이콥스키 '스페이드 여왕'(26일~27일) 콘서트/베를린 필 '발트뷔네 콘서트'(1일, 6일), 베

PITTA 강형호 콘서트
New Normal Life

일 시 | 7월 20일-21일 토-일요일 오후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블랙홀 같은 매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PITTA 강형호의 데뷔 후 첫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

이번 무대는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보컬그룹 포레스텔라(Forestella)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형호가 확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밴드 PITTA와 함께 하는 첫번째 전국투어이자 그의 신보 EP 'New Normal Life'의 발매 기념 콘서트이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Don't be quiet', 'Persona', 'Sweet Dreams', 'Icarus' 등 오리지널 PITTA의 곡으로 구성된 특별 세트리스트에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PITTA의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연출을 더해 한층 더 높아진 수준의 무대를 만나 볼 수 있다.

르디 '레퀴엠'(8일, 13일), 말러 교향곡 제1번(15일, 19일),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22일, 27일), 말러 교향곡 제3번(29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연주회 해설감상회&작곡가 탄생지 다규기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 장 료 | 10만원(2개월)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음악 감상과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최신 클래식연주회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클래식 입문자도 환영

영도 인디 콘서트 ROMANTIC 영도

일 시 | 7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4만원(중학생 이상 관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6과 JTBC '싱어게인'에 출연하여 대중들에게도 눈도장을 찍은 밴드 너드커넥션과 5인조 밴드 몽돌이 출연,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무대로 여름밤을 달

구는 '로맨틱 영도'.

연세대학교 밴드동아리 메두사에서부터 시작된 4인조 남성밴드 너드커넥션은 1990~2000년대 초반 영국의 밴드 음악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팀으로,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음악'이라는 표어 아래에서 브리티시 팝과 얼터너티브 록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꿈 몽, 부딪힐 돌'의 몽돌은 '꿈을 위해 부딪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밴드로, 밝고 신나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파리 올림픽 기념 '프랑스작곡가 작품' 시리즈 '생상스 오르간 교향곡' 외, K가곡의 매력 '시간에 기대어', '잔향', '첫사랑', '마중' 외,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1812년' 서곡,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_바로크 음악 특집 '헨델-왕궁의 불꽃놀이 모음곡', '바흐-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외,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 엘가 '첼로협주곡', 음악영화-'아마데우스' 감독판 다시보기, 오페라감상실_푸치니 '나비부인' 전막감상

제196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첫사랑'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7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010-63670-0149

- 출연/김유신낭송가, 정태운 시인 외 회원 & 초대시인
- 사회/김병래(전 KBS 아나운서 부장)
- 초청 음악가/가수 성혜영, 바리톤 배용, 클래식기타 고충진

7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5일(금), 19일(금)
오후 2:00, 25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1일(월) 도나우강 자전거 여행(2)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5일(금), 19일(금) 오후 2:00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참석 예약

8일(월) 오후 7:00 미디어 리터러시(1) '현존을 구현하다'

• 강사/박흥식(터코리아저널 편집인)

15일(월) 오후 7:00 반(反)미학의 미학 '예술, 그 아름다움에 반(反)하다'

• 강사/정인지(Art teller)

22일(월) 오후 7:00 백남준과 K-ART

• 강사/서진석(부산시립미술관 관장)

25일(목) 오후 5:00 하이쿠 산책 ※참석 예약

29일(월) 오후 7:00 시네마 연노은 '무명배우전_검치호(劍齒虎, 85min, 2022)'

• GV/신용철(배우), 이강욱(감독), 김영광(평론가)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3개월 11만원(현장강의 9회, 음악회 1회)
문 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문의)



뮤직가이드 박진영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수업 후에는 각 나라의 민요, 가곡, 뮤지컬,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세.음.여.중.창.단' 활동 또한 가능하다.

5월부터 7월까지 1분기 강좌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 2세, 모차르트, 슈베르트를 통해 오스트리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박진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해운대문화회관 아카데미, 해운대인문학도서관, 연제구 클래식을 만나다 등 다양한 음악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특별기획전 수집가 傳 : 수집의 즐거움 공감의 기쁨

일 시 | 4월 26일(금)-7월 7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기획전시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그라운드시소 국내 투어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부산

일 시 | 5월 1일(수)-9월 22일(일)
KT&G상상마당부산
입 장 료 | 균일 1만5천원
문 의 |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

두근두근 도라에몽 IN BUSAN 展

일 시 | 5월 1일(수)-11월 3일(일)
KT&G 영도 파아크 전시장
입 장 료 | 일반 1만8천원, 청소년·어린이 1만5천원
문 의 | 우리공간연구소 1566-1957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7:30

판놀음 극단새벽 40년 기록전시

일 시 | 7월 4일(목)-20일(토)
호로인디아아트홀 갤러리 '기억의 방'
문 의 | 극단새벽 245-5919



극단새벽 창단 40주년 두 번째 기획공연인 '새 허생 이야기' 상연에 맞춰 함께 열리는 '극단새벽 40년 기록전시'.

극단새벽의 40년 기록물 중 작품 속 대사와 그 대사의 배경이 되는 시대, 혹은 공연사진을 통해 4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로, 극단새벽이 마주한 당대와 어떻게 호흡하며 걸어왔는지, 그리고 소극장운동과 대안문화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다.

• 운영시간/오후 2:00~오후 7:00(목-토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일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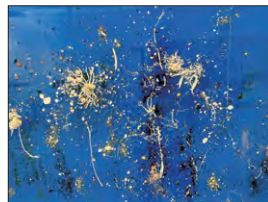
이정윤 초대개인전 The song for leaving and living

일 시 | 7월 6일(토)-7월 31일(수)
갤러리 한스
문 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색이 있는 판유리에 식물을 얹고 유리가루를 뿌린 후 가마에 넣어 이미지를 성형하는 퓨전기법 방식의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이정윤 작가 초대전.

유리와 다른 재료가 섞인 채 녹아서 새롭게 재탄생된 정화과정의 결과물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특히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시원한 느낌의 작품들 속에서 잠시 망중한을 즐길 수 있다.

• 오프닝/7월 6일(토) 오후 3:00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한지아 초대 애도의 표상

일 시 | 7월 15일(월)-8월 10일(토)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인간은 죽은 후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우며 내가 여기 있음을 알렸다. 묘비는 죽음에 의해 세워진 도상이며 문자가 만들어진 후에는 묘비명을 새겨 신원확인 및 명복을 비는 문구를 넣

기도 하였다.

3단계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비가시적 영역의 표현 매개인 그림과 조형물로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기억과 상상을 구현하면서 죽음에 의해 탄생한 이미지가 고인을 애도하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로한다.

• 운영시간/오전 10:00~오후 6:00 *일요일 휴관



부산미각

최진아 외 지음
문학동네 / 2만 2,000원

“재치국 사이소~” 요즘은 듣기 힘들지만, 지난 시절 부산의 새벽을 깨우는 소리였다. 동네 골목 마다 누비고 다니며 재첩국을 파는 아지매들의 소리는 한 시절이 지나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 맛이 아니라 소리로 기억되는 음식이 부산의 재첩국이다. 부산에 오래 살며 부산 음식을 먹고 자란 인문학자 열네 사람이 부산의 맛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풀어낸 책 ‘부산미각’ 첫 페이지는 재첩국부터 시작한다. 목차가 맛집 메뉴판 같다. 재첩국, 복국, 돼지국밥, 완탕, 고등어, 대구, 웅어, 곰장어, 낙지, 암소갈비, 밀면, 간짜장, 구포국수, 영도 조내기 고구마, 부산 오뎅, 양갱, 동래파전, 금정산성 막걸리, 대선소주. 이 책이 소개하는 부산의 맛을 차례로 열거하고 보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푸짐하게 차려진 만찬을 눈앞에 둔 것 같다. 역사적으로 부산은 대륙과 해양의 관문이었다. 부산을 통해 한중일은 물론 동남아, 유라시아 문화가 교류했다. 그 역사는 음식에 고스란히 남았다. 이국이 만나고 변모한 부산의 흥미로운 역사, 전쟁의 파고를 헤쳐 온 평범한 사람들의 힘찬 생명력, 이 모든 이야기가 부산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에 담겨 있다.



약보 너머의 클래식

나카가와 유스케 지음
이은정 옮김 / 현익출판 / 2만 원

‘다다다 단~’ 하는 강렬한 도입부로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는 베토벤의 ‘운명’, 영화 ‘쇼스’ 주제가의 모티브가 된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평소 자신이 클래식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한 소절만 들으면 귀에 익을 만큼 친숙하면서도 대중적인 클래식이다. 그리고 음악사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명곡이다. 이 책은 불후의 10대 교향곡을 중심으로 각 명곡의 작곡 배경과 작곡가의 생애를 새롭게 바라본 역사 논픽션이다. 하이든과 모차르트부터 베토벤, 슈베르트, 베를리오즈, 차이콥스키, 드보르자크, 말러, 쇼스타코비치까지 위대한 작곡가들의 교향곡 이야기가 국경과 대륙을 넘나들며 이어진다.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라이벌 관계, 전 생애에 걸쳐 나폴레옹과 묘한 연결고리를 가졌던 베토벤, 베토벤의 관을 멘 슈베르트, 역작 ‘비창’을 초연하고 고작 9일 뒤 의문의 죽음을 맞은 차이콥스키, 대숙청 당시의 러시아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쇼스타코비치 등. 150년 동안 음악사의 주요 장면들은 격변하는 유럽사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작곡가들 간의 흥미로운 교집합을 따라가다 보면 의식하지 않아도 어느새 클래식의 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단순한 그림 단순한 사람 장욱진

정영목 지음
소요서가 / 2만 8,000원

장욱진은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유영국과 함께 한국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다. 정영목 서울대 명예교수가 미술사가이자 평론가로서 그간 발표해 온 화가 장욱진에 관한 글을 모아 그림과 함께 엮었다. 저자는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고 그림은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견지에서 장욱진을 한국적 모더니스트로 규정하며, 한국근현대미술사 기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는 장욱진이 60여년 화업을 꿰뚫어 몇 가지 소재를 작은 화폭에 반복적으로 표현했던 사실을 경이의 눈으로 들여다보라고 권유한다. 그리고 장욱진의 그림세계를 무한히 크고, 반복이 아닌 반복으로서 해석해 낸다. 장욱진의 작품세계를 흔히 그의 거처를 기준으로 덕소/수안보/용인 시절로 구분해 온 것과 달리, 이 책은 새로운 시기 구분을 제시한다. 장욱진의 작품세계를 ‘자전적 향토세계’, ‘자전적 이상세계’, ‘종합적 이상세계’의 3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장소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심상의 변화에 주목한 것이다. 저자는 장욱진이 남긴 1백여 점의 그림을 소개하며, 조형방법과 세계관이라는 형식과 내용상의 변화를 통해 장욱진 작품세계를 새롭게 포착한다.

부산시민회관 영상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최첨단 영상시스템 구축



전후면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영상시연



좌우 LED자막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이 부산시민회관의 노후화된 영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영상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영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영상 고도화 사업에 따라 대극장에는 최신 유행에 발맞춰 4K 화질을 지원하는 최신형 빔프로젝터를 도입했으며 이 외 이동형 빔프로젝터를 추가 구성, 대극장 및 소극장의 후면 투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공연에 따른 최적화된 공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독성이 떨어지던 대극장의 빔프로젝터 자막 시스템을 최신 LED 자막기 시스템으로 교체함으로써 자막을 비롯한 다양한 영상정보 전달이 용이해졌다. 이번에 설치된 LED 자막기는 객석 좌, 우에 163인치의 크기로 설치됐으며 FHD(1920×1080)의 화질을 제공하는데, 특히 LG에서 최근 개발한 정형화 사이니지 시스템으로 국내 공연장로서는 최초 설치됐다. 소극장의 경우에도 그동안 자막 시스템이 부재하여 영상정보 전달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극장의 빔프로젝터 자막기의 이전 설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연장 안전교육 영상 및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부산시민회관은 이번 영상 고도화 사업에 발맞춰 공연장 안전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했다. 기존 음성으로만 전달되던 피난대피 안내와 관람예절 영상은 물론 공연제작자 및 예술가들을 위한 안전 교육용 영상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공연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연장의 VR 투어(무대 공간 구축 시스템)를 자체적으로 구축,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예술감독 홍석원 시립무용단 신임 부안무자 서정숙



그동안 공석이던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예술감독에 광주시립교향악단 홍석원 예술감독이 선임됐다.

홍석원 신임 예술감독은 서울대학교와 베를린국립음대 한스아이슬러 지휘과(Diplom) 및 동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지휘과(Konzertexamen)를 졸업하고 2015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티롤주립극장 수석 카펠마이스터, 2019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2020 성남문화재단의 '오페라의 정원' 시리즈 음악감독을 역임했다.

또, 올해 처음 선출한 부산시립무용단 신임 부안무자에는 부산시립무용단 서정숙 훈련지도자가 선임됐다. 서정숙 신임 부안무자는 1989년 상임단원으로 부산시립무용단과 인연을 맺은 후 2011년부터 훈련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 2024 하반기 공연프로그램(7월~12월)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4. 7-12월

July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 '핀팬'을 위한 렉처 콘서트
미술관 옆 콘서트홀

문화 | 중극장 2024. 7. 19.(금), 9. 6.(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미술 해설 | 이주현
 - 음악 해설 | 손지현
 - 연주 | 무지카베바 챔버앙상블
- ※ 7세 이상 관람



모두가 하나되어 떠나는 판타지 모험!
뮤지컬 <달 샤페트>

문화 | 중극장 2024. 8. 17.(토)-18.(일)

11:00am, 2:00pm, 4:00pm

옥동까지 60,000원 녹대석 40,000원

- 원작 | 백희나
- ※ 24개월 이상 관람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문화 | 대극장 2024. 8. 23.(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8세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4. 8. 28.(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플루트 | 김유빈
 - 피아노 | 김도현
- ※ 7세 이상 관람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여인
오페라 <나비부인>

문화 | 대극장 2024. 8. 31.(토)-9. 1.(일) 5: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작곡 | G. 푸치니
 - 지휘 | 이병욱
 - 연출 | 김숙영
 - 합창·연주 | 2024년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
- ※ 7세 이상 관람



오전 11시의 브런치 콘서트

2024 마티네 콘서트 III - 모차르트

문화 | 대극장 2024. 9. 27.(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 정인혁
 - 소프라노 | 박현진, 손주연
 - 바리톤 | 이광근
 - 첼로 | 홍승아
 - 해설 | 손지현
 - 연주 |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 ※ 7세 이상 관람



객석을 전율시키는 건반 위 철학의 힘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챔버홀 2024. 10. 17.(목) 7:30pm

전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10월을 물들이는 낭만적 만남

첼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문화 | 중극장 2024. 10. 19.(토) 5: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문화 | 사랑채극장 2024. 10. 22.(화)-12. 6.(금)

평일 10:30am, 토요일 11:00am, 2:00pm

(일·월 휴관) ※ 평일공연은 단체관람(10인 이상)만 가능

전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



2024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첫 국내 투어
**압 판 츠베덴&글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 | 대극장 2024. 11. 2.(토) 5:00pm

VIP석 90,000원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음악의 힘으로 더욱 몰입하다

카카오게임즈 게임OST페스티벌

문화 | 대극장 2024. 11. 15.(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문화 | 대극장 2024. 12. 7.(토) 5: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5세 이상 관람



연말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기 공연!
2024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문화 | 대극장 2024. 12. 15.(일) 4: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국립현대무용단 지역상생 프로젝트
<수선되는 밤 × 정글>
시민 | 대극장 2024. 9. 21.(토) 5: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7세 이상 관람



볼수록 추천하고 싶어지는 단 하나의 두드림!
2024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 부산공연
문화 | 중극장 2024. 12. 20.(금)-12. 25.(수)
 평일 7:30pm, 주말 3:00pm, 6:00pm,
 크리스마스 3:00pm
 ※ 36개월 이상 관람



뱀파이어와 인간의 만남을 그린 창작 뮤지컬
뮤지컬 <베니싱>
시민 | 대극장 2024. 10. 19.(토) 2:00pm, 6:00pm
 R석 66,000원 S석 44,000원
 ※ 13세 이상 관람



2024 (재)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12. 24.(화) 7:30pm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 바이올린 | 사라 장
 ※ 7세 이상 관람



2021 제42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
연극 <이단자들>
시민 | 소극장 2024. 10. 25.(금) 7:30pm
 10. 26.(토) 2: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10세 이상 관람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시민 | 소극장 2024. 11. 2.(토) 2:00pm, 6:00pm
 11. 3.(일) 2: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10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동화의 감동과 발레의 우아함이 환상적으로 그려진 명작발레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시민 | 대극장 2024. 7. 12.(금) 7:30pm, 7. 13.(토) 2: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 미술 해설 | 이주현



'순수'로 돌아가 '나'를 마주하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2024. 11. 22.(금) 7:30pm
 VIP석 80,000원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독보적 감성의 로이킴과 행복을 노래하는 소란의 So Romantic한 만남
로이킴&소란
시민 | 대극장 2024. 7. 27.(토) 5:00pm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7세 이상 관람



국립정동극장 연극시리즈
연극 <더 드레서>
시민 | 대극장 2024. 12. 6.(금) 7:30pm
 12. 7.(토) 2: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11세 이상 관람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현악 5중주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시민 | 대극장 2024. 8. 17.(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인 수준높은 실내악 공연
**스타즈 온 스테이지 - 리처드 용재 오닐,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길우**
시민 | 대극장 2024. 12. 27.(금) 7:3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7세 이상 관람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MEMBERSHIP GUIDE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수(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 여파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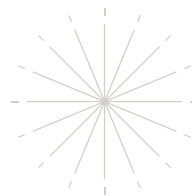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종료**

2024년 6월 6일(목) 오후 2:00, 7일(금) 오후 7:30
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9일(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1인 4매)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종료**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II - 푸치니 **종료**

2024년 6월 28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루돌프 부흐빈더&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종료**

2024년 6월 2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미술관 옆 콘서트홀

2024년 7월 19일(금), 9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2024년 8월 1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4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2024년 8월 23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오페라 <나비부인> 종료

2024년 8월 31일(토)-9월 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국립현대무용단 <수선되는 밤 x 정글>

2024년 9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III - 모차르트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뮤지컬 <배니싱> 종료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2:00,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연극 <이단자들>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7:30, 10월 2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4년 10월 17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젯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종료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종료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2:00, 오후 6:00
11월 3일(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압 판 츠베덴&클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종료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카카오게임즈 게임OST페스티벌

2024년 11월 1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4년 11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연극 <더 드레서> 종료

2024년 12월 6일(금) 오후 7:30, 12월 7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종료

2024년 12월 15일(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재)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종료**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스타즈 온 스테이지

-리처드 용재 오닐,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길우 종료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은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은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문홍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즈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애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임은자
- 정명선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2024.
7.2.tue —
10.27.sun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Claude Monet, The spring, 1875. Oil on canvas
Johannesburg Art Gallery,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monet to warhol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홍보 마케팅팀(607-6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60



- 참여기간 : 2024. 6. 25.(화)~7. 17.(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4. 7. 24.(수)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4년 6월호 낱말퍼즐 정답 및 당첨자

당첨자

010-****-6722 010-****-0271
010-****-6513 010-****-8714
010-****-9331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재)부산문화회관



@배시시TV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당일 \$100 이상 구매시, 1만원 면세포인트 증정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사은정책 적용

증정 기간 : 2024. 7. 31까지
증정 장소 : 부산점 고객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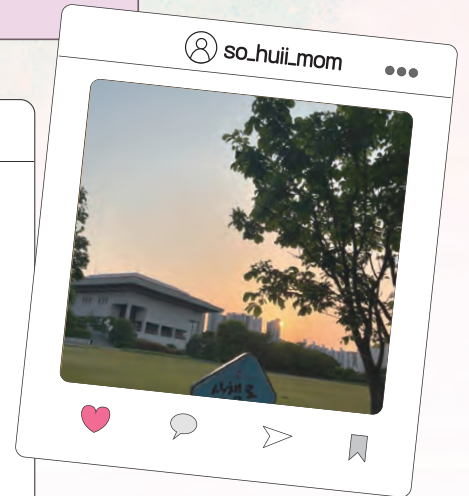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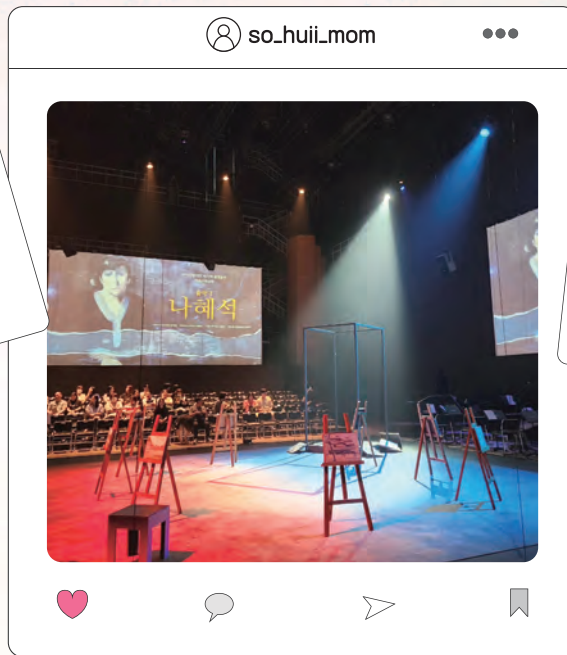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7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_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_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_8월호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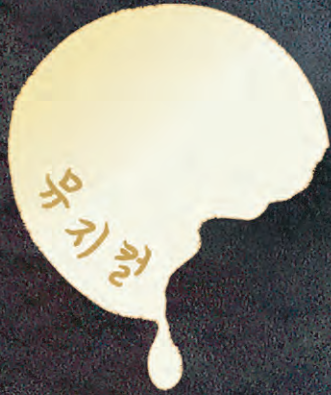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HARLEQUIN
KIDS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다
리
샤
베
트

백희나 인간



2024.8.17(토) ~ 8.1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럭셔리콘서트

미술관 옆 콘서트홀

젊음과 바다



MUSIC & ART LECTURE CONCERT



2024.07.19(금) 19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미술해설 이주현



음악해설 손지현



연주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SON COMMUNICATION

| 후원 | SK 증권

| 티켓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예매·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현악 5중주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내한 공연

"감히 단언컨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 매리 앤 케네디, BBC
"놀라운 라이브 밴드인 VOLOSI는 모든 페스티벌의 초대 희망 목록에 올라 있다!" - 사이먼 브로튼, Songlines



VOLOSI

2024.08.17(토) 1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리켓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입장연령 7세 이상 관람가

|문의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ARS 1번)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1544-1555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 건립 기원
2024 부산오페라시즌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오페라

Busan
is good
부산이 좋다

Giacomo Puccini

마담부인

MADAMA
BUTTERFLY

지휘 이병욱

연출 김숙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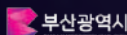
출연 조선형, 임경아, 박지민, 양승연, 정승기, 나현규, 신성희, 김세련, 원유대, 김정대, 박순기, 이지영, 오바을 외

연주 2024년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 · 오케스트라

2024년 8월 31일(토) 9월 1일(일)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주관·제작



협력제작



티켓가격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문의 051-607-6000(ARS 1번)